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앞: 워싱턴 디 시 성전 천사상, 아바드 페어밴크스 조각; 사진 촬영: © 1994 마크 에드워드 에트킨즈.
뒤: 솔트레이크 성전 천사상, 사이러스 델린 조각;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친구들 표지

씨실(가로)과 날실(세로)을 엮어 벽걸이 융단을 짜고 있는 과테말라의 여인. '아름다운 태피스트리(벽걸이 융단)', 4쪽 참조.

일반

- 2 대관장단 메시지: 예언자의 영감에 찬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6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림 로버트 엘 밀렛
- 12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제이 마이클 헌터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생각과 행동에서의 순수성
- 34 볼리비아: 풍성한 축복 주디 시 울슨
- 44 경전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봄 조지 에이 호튼 2세

청소년란

- 11 참인가 거짓인가 저스틴 하켄슨
- 20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는가 말린 케이 켄슨 장로
- 24 정말 훌륭하니까, 그 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 26 말일성도의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나는 영원한 가족을 원해요." 알폰소 카스트로 바즈케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움베르토 아테 카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힘을 주었음" 브라이언 우
"나는 신권의 권능을 믿습니다." 로드리고 메데이로스 오노리오
- 31 질의 응답: 어떻게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요?
- 46 명예로운 귀환 이놀드 레먼



24쪽 참조

친구들 (별책 부록)

- 2 친구가 친구에게: 키스 비 맥멀린 감독
- 4 함께 나누는 시간: 아름다운 태피스트리(벽걸이 융단) 앤 재미슨
- 6 이야기: 아만다 프랫, 정의반 스파이 로리 모턴슨
- 9 믿음을 실천할 때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
- 10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안식처 바바라 진 존스
- 12 신약 성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감



44쪽 참조



34쪽 참조



6쪽 참조



26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편집장: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퍼커, 엘 볼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 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룬더,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알린 케이 켈슨

고문: 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장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편집 보조: 레너 케이 터터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맥 켈렌

선임 디자이너: 세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맨 피터스

생산: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텐슨, 데니스 커비, 제이슨 엠 엠

포드, 디나 엘 쇼펜슨

디지털 교정 인쇄: 제프 미턴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413호, 제37권, 제8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0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운임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파냐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ugust 2000 No.8.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속죄로 위안 받음

1999년 4월호 리아호나스페인어 판에 실린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기사 "잘 견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지닌 성경케 하는 힘을 느낄 때 저는 큰 위안을 얻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흠없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망, 외로움, 그리고 의기소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팔을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영접을 받고 싶습니다.

아델라 로하스 구즈만,

카루파노 제1지부,

베네수엘라 바르셀로나 선교부

"저는 리아호나를 펼칩니다."

리아호나(영문판)는 제가 여행갈 때면 꼭 가져가는 필수 지침물입니다. 저는 직업상 필리핀 전국을 여행해야 합니다. 호텔 방에 혼자 있을 때면,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저는 리아호나를 펼치고 위안을 주시는 성신의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회원들의 이야기와 간증을 읽어 나가면서 영감을 받고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께서 저의 가족과 저를 보살피고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



두가 안전하고 걱정없이 지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줄리 비 오드라,

마사카나 제1지부,

필리핀 안티폴로 스테이크

희생의 가치

저는 1999년 리아호나스페인어 판 1월호에 게재되어 있는, 연차 대회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막 다 읽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교회와 세상에 있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강한 영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고 있습니다.

브라질 벨로 호리존테 이스트 선교부에 내가 있는 제 아들이 매주 집으로 보내 오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 아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그의 선교 부장의 인도를 통해 수면으로부터 받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들을 제가 아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었을 것임을 깨닫곤 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면서 아들이 얻는 성장이, 그의 선교 사업에 따르는 어떤 노력이나 희생 보다도 더욱더 크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합당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예언자의 권고는 확실히 저의 가족 가운데 유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돌포 알베르토 에베스,

아수노크 제2지부,

브라질 베르나르도 루드게 라모스 스테이크



예언자의 영감에 찬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간증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심을 압니다. 그분의 생애는 어떤 작가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면서 아주 생생하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분은 요셉과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3)입니다. 그 지식이 이 교회에 주어졌으며 그것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곧 부활하신 주님이시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분의 실재에 대한 간증과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¹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곧 부활하신 주님이시자
세상의 구속주이신 분의
실재에 대한 간증과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열심히 찾는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 즉 학업이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나 결혼할 상대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²

부모

“부모가 되시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지표가 될 복극성을 찾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의 교훈을 받을 것 이라고 선포한 다음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이사야 54:13)

“... 여러분은 평강이 없는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버림 받은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곤란한 지경에 빠진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젊은이들 즉 여러분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지 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의로운 생활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지혜와 이해력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³

의로운 남성

“남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할 수 있는 권세이고 교회의 관리직에서 봉사할 수 있는 권능이며 다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할 자격이자 권리이며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외설물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곧 신앙으로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진리의 사람이어야 하며 훌륭한 남편과 친절한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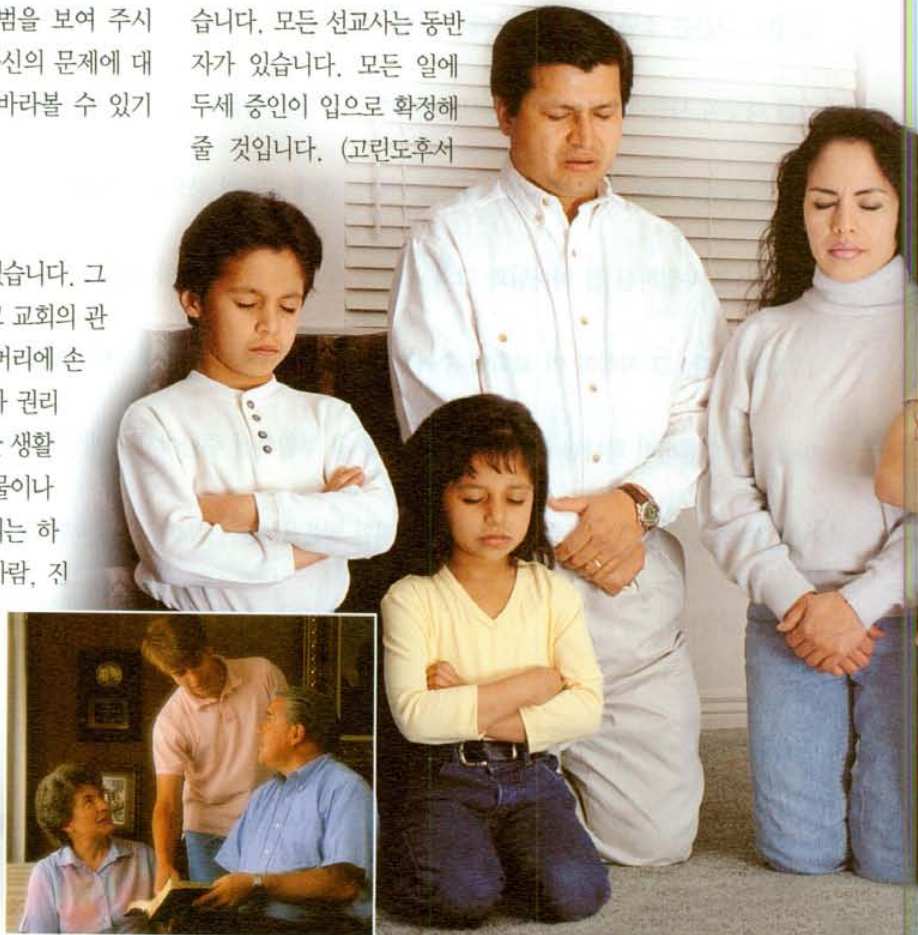
청소년 여러분, 부모님에게 충실하십시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귀중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때때로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분들은 여러분에게 모든 희망과 꿈을 걸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에 대해 걱정합니다.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에게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사랑과 존경과 친절함으로 그 분들을 대하십시오. 때때로 그 분들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해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⁵

선교사 동반자

“아시아에서 몇몇 선교사들을 접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들 중 한 명에게 ‘동반자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다음 ‘제 동반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선교 사업을 하러 거리로 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합니다.’ 라고 짧막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동반자의 장점을 장로님의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두세 중인이 입으로 확정해 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1 참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업에서 동반자와 더불어 증인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⁶

십일조

“주님은 참으로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킬 책임에서 여러분의 몫을 다하기를 즉 여러분의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충실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운영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충실함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비용은 바로 여러분처럼 훌륭하고 충실한 분들의 헌금을 통해 나옵니다. 십일조는 돈의 문제라기보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⁷

성전 추천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 뽐내려는 뜻이 아닙니다 — 선교 사업을 한 이래로 계속 성전 추천서를 소지해 왔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것은 제 호주머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저의 신용 카드이며 저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⁸

자신을 믿음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빛과 진리와 지식을 전파하며 고통과 궁핍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쳐 도움을 주고 그들을 축복해 줄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⁹

성찬식

“매주 성찬을 취하는 성찬식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무덤을 넘어 영광스러운 미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분이 이루신 위대한 속죄의 상징인 성찬을 취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회와 훌륭한 축복으

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¹⁰

물문경

“[물문경]은 구모라 언덕에서 티끌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와, 주님의 신성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세상에 퍼져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언어와 말로 매년 약 오륙백만 권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책을 타자했던 사람, 인쇄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외에 이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신세계의 이 놀라운 성약의 책이 지금까지 나아갔던 방법으로 세상에 널리 나아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책에는 영감 곧 보기에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 책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것입니다.”¹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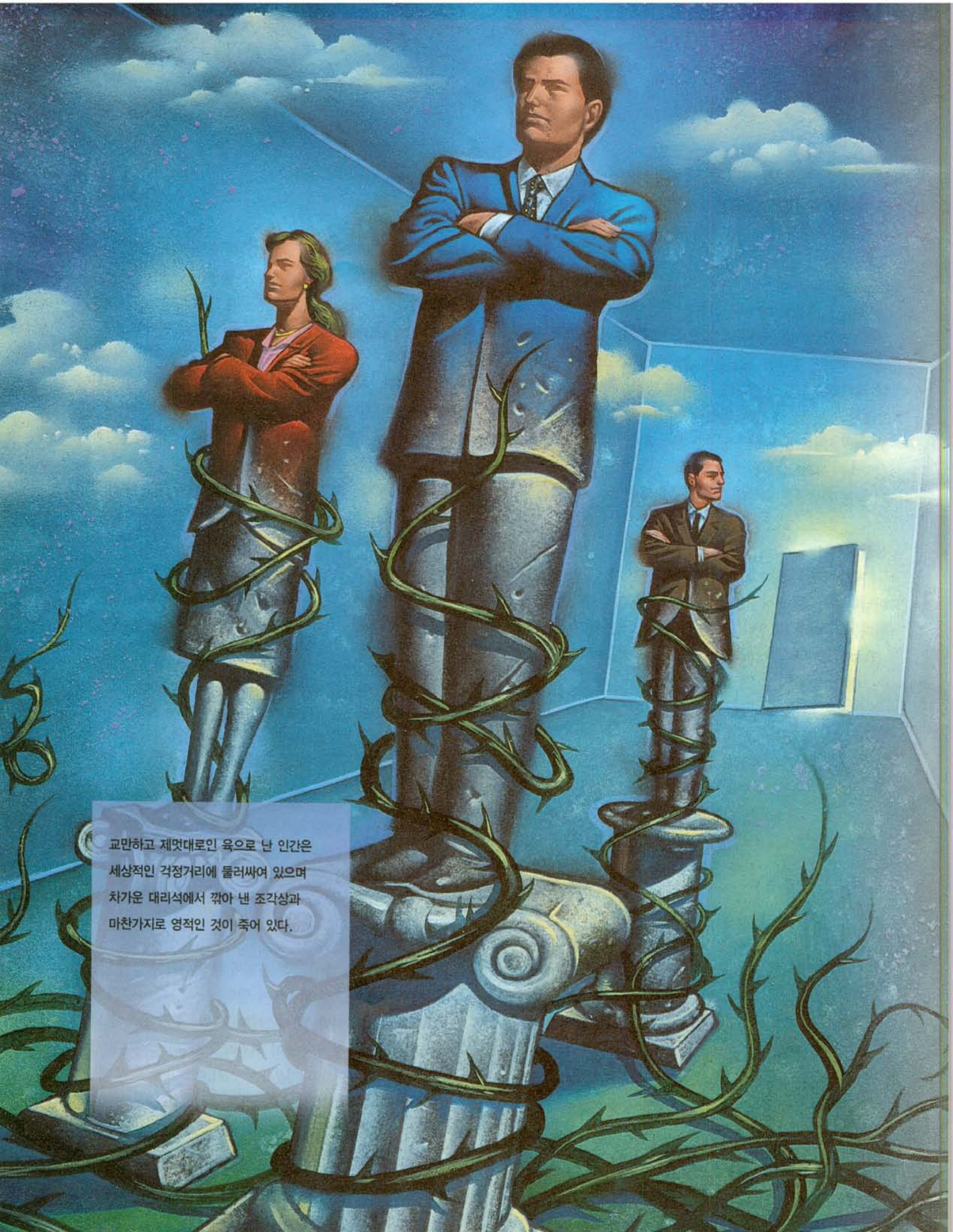
주

1. 1998년 7월 31일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빅토리아 모임.
2. 1998년 8월 6일 캐나다 퀘벡 주 몬트리올 모임.
3. 1998년 8월 4일 캐나다 매니토바 주 위니펙 모임.
4. 1998년 8월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서드버리 모임.
5. 1998년 8월 4일 캐나다 매니토바 주 위니펙 모임.
6. 1998년 6월 26일 (유타 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영적인 모임.
7. 1998년 4월 25일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모임
8. 1998년 10월 15일 매사추세츠 주 로월 모임
9. 1998년 11월 15일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모임
10. 1998년 3월 15일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 지역 대회
11. 1998년 3월 26일 뉴욕 주 팔마이라 그랜던 빌딩 헌납식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주님은 그분의 종이 말하는 것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다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68:4)
2. 여기에 나온 인용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복음 대상자나 가정 복음 대상 가족을 강화시키고 축복해줄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다.





교만하고 제멋대로인 욕으로 난 인간은
세상적인 걱정거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차가운 대리석에서 깎아 낸 조각상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이 죽어 있다.

육으로 난 자기를 버림

로버트 엘 밀렛

그림: 캐리 헨리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은 이렇게 말
씀하셨다. “인간은 배가 고파야 비로소 음식을 갈구하
듯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타락의 교리와 그것
이 모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까지
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그리고 올바르게 알 수 없
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책도 이 중요한 교리를 물론경
만큼 잘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¹

베냐민 왕은 물론경에서 타락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해석 중
하나를 전해 주었는데 그 교리는 베냐민 왕이 하나님의 천사
로부터 받은 것이었다.²

타락의 교리

베냐민 왕은 성전에서 전한 심오한 말씀 중에 “육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모사이야서
3:19)이라고 가르쳤다. 베냐민 왕이 인류에 대해 말하고 있
는 것은 무엇인가? 육으로 난 인간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아담의 타
락의 결과를 이해해야 한다.

아담과 이브는 범법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바
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완전히 잘리워졌다. 그
러한 분리가 사망이라는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구세주께서는 이 분리된 상태를 속죄하도록
예임되어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아담을 이렇게 위로하셨다.
“나는 에덴 동산에서 지은 네 범법을 이미 용서하였느니라.”
(모세서 6:53) 그러나 우리는 이 선언을 앞뒤의 내용을 보
면서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조의 죄를 대속하
였고 이로써 양친의 죄는 자녀의 머리로 돌아올 수 없도다.”

(모세서 6:54)라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 영
향받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여호와와는 아담
에게 “네 자녀는 죄 가운데 잉태되는 고로 저들이 자라기 시
작하자 죄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잉태되나니, 저들이 선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도록 쓴 것을 맛보느니라.”(모세서 6:55)
라고 설명하셨다.

우리는 존 칼빈(1509~1564)과는 달리 인간이 도덕적
결함을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믿지 않는다. 또한 마틴 루
터(1483~1546)처럼 심지어 인간은 악을 극복하고 선을
선택할 능력이 가지지 못했다고 믿지 않는다. 또 어린아이
들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나 출생으로 인해 소위 아담의
죄를 상속 받는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어린아이들
이 세상의 죄 속으로 태어난다고 믿는다. 잉태는 아담의 원
죄가 아니라 타락의 영향, 즉 죄와 질병과 육신의 다른 불
행들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단순한 과정이라고 믿
는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죽는다.—십이사도 정원회
의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1915~1985)는 다음과 같이 말했
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관련하여 죽습니다. 의로운 것과 관
련하여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납니다. 육
으로 난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라고 한 경전 내용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³

육으로 난 인간

그러면 육으로 난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간단
하게 말하자면 육으로 난 인간은 타락한 상태 그대로의 사람
이다. 그는 영적인 거듭남을 겪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다. 육
으로 난 인간은 한쪽 극단에는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하



며 그로 인해 육체와 육욕과 악마를 쫓는 자의 면모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모세서 5:13 참조)

다른 극단을 보면 육으로 난 인간은 도덕적이고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현재의 타락한 세상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여전히 생기를 주는 성신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정화시켜 주는 그리스도의 성약과 의식을 누리지 못한다. 비록 그리스도의 빛이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것을 따라 주님의 충만한 복음 진리로 들어가지 않는다.

구세주께서는 “온 세상은 죄 가운데 처하여 흑암과 죄의 사슬 아래서 신음하니, 이로써 저들이 내게로 나아오지 아니함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느니라.” (교리와 성약 84:49~50)라고 선언하셨다. 주님은 보다 명확하게 “내가 이 세대에 보낸 나의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 외에는 선을 행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35:12)라고 하셨다.

그러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은 어떤가? 우리 중 “육으로 난” 존재가 있는가? 아마도 육으로 난 인간의 몇 가지 총괄적인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육으로 난 인간은 영적인 실재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14)

브리감 영 대관장(1801~1877)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육으로 난 사람을 가르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 그에게 천사와 천국과 하나님과 불멸과 영생에 대해 말한다면 그의

귀에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 리 같을 것입니다. 그의 귀에 그것은 음악으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에는 그의 지각을 황홀하게 하거나 그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거나 그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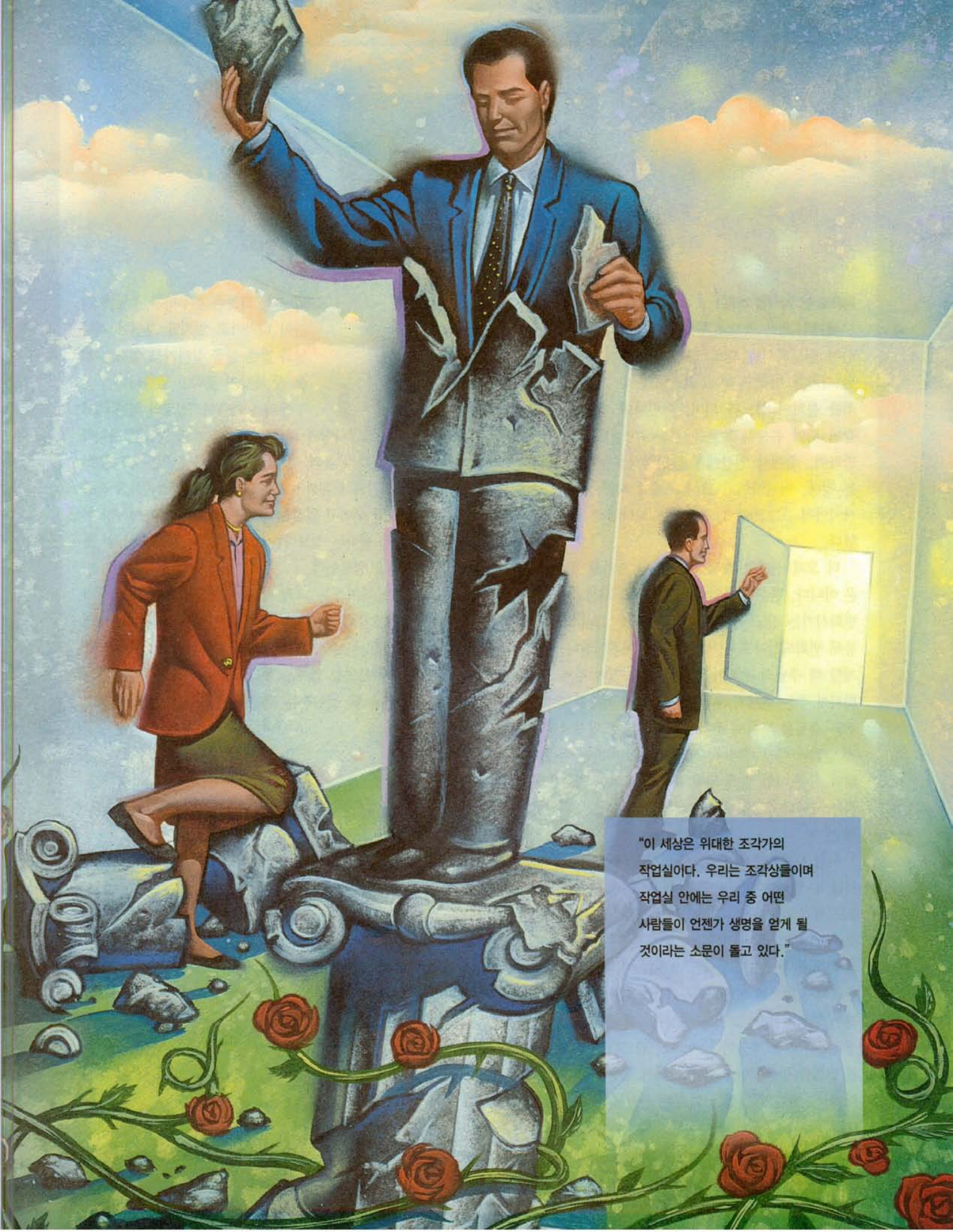
의를 끌거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것이 모두 헛된 것입니다.”

2. 육으로 난 인간은 교만하다. 육으로 난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교만이다. 육으로 난 인간의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수평적 시선으로 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올려다보거나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다.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 교만한 자는 그들의 뜻에 하나님이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⁵

3. 육으로 난 인간은 이 세상의 보상에 몰두한다. 그의 가치 기준은 오로지 실용주의와 물질주의에서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오로지 어떤 것을 소유하는 데서 일시적인 쾌감을 찾는다. 이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웃 사람보다 더욱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

4. 육으로 난 인간은 거칠고 미숙하다. 주님의 영은 그 결실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평온하고 고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정화시켜 주는 자로서 성신은 “모든 자연적인 열정과 애정을 확대, 확장시켜주고 순화시켜 주며, … 덕, 친절, 선, 부드러움, 다정함, 그리고 사랑을 불어넣어” 준다.⁶ 반면에 “육으로 난 인간”이란 거친 동물적인 걱정이 자신의 영적인 성향을 압도하도록 버려 두는 세속적인 인간을 말한다.” 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절이 부족하며 말씨와 태도에 교양이 없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다. 우리는 조각상들이며
작업실 안에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언젠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육으로 난 자기를 버림

베냐민 왕은 육으로 난 인간은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 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 겸손하며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여, 주께서 인간에게 합당하다 여기어 내리시는 모든 것에,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하듯 기꺼이 순종”(모사이야서 3:19)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적이라고 설명했다.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육으로 된 자기를 벗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변화되겠다고 선택할 때에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의 속죄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며 성신의 정화시켜 주는 권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부여해 준다. 그것이 바로 경전에서 그 과정을 일컬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우리의 죄를 사함 받게 되면 우리의 불의한 것들은 죽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새롭고 더 높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극적이고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노스(이노스서 1:1~8 참조)와 사도 바울(사도행전 9장 참조)과 라모나이 왕(엘마서 18~19장 참조)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러나 벤슨 대관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우리는 이들에 관해 토론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변화가 실제적이고 강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예외의 경우였습니다. 바울이나 이노스, 라모나이 왕과 같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미묘하고 깨닫기 힘든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명이

됩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라디아서 5:22~23 참조)를 매일 조금씩 향유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구세주의 뜻을 알고 행하려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열망한다.

시 에스 루이스는 그의 글에서 인간성에 이러한 생기와 향상이야말로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 준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다. 우리는 조각상들이며 작업실 안에는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이 언젠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⁹고 말하고 있다. □

주

1.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95쪽.
2. 브리감 영 대학교의 도서관학 교수인 커티스 라이트의 도움을 받아 이 기사의 개념 중 많은 것을 작성했음.
3. *The Promised Messiah* (1978년), 350쪽.
4. *브리감 영의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1954년), 260쪽.
5.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4~5쪽.
6. Parley P. Pratt, *Key to the Science of Theology*(1966년), 101쪽.
7. 스펜서 더블류 김볼, “해류와 가정의 영향력”, 성도의 빛, 1975년 7월호, 4쪽.
8. “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빛, 1990년 3월호.
9. *Mere Christianity*(1960년), 124쪽.

참인가 거짓인가



저스틴 하켄슨

선교 사업을 나갈 나이가 되자, 나는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시기에 나는 가까운 한 친구와 종교에 관해 많은 토론을 하였다. 우디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무신론자로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우러러보는 부류의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였다.

우디를 만나기 전에는 강한 간증을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곧 그러한 확신이 흔들렸다. 우디의 무신론적인 견해가 점차 내게 합리적인 것으로 들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내 마음의 한 편에 있는 그 무엇이 내가 우디의 사고 방식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 주었다.

많은 생각과 기도 끝에 열아홉 번째 생일을 앞둔 어느 날 밤, 나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가 참된가를 여쭙어 보았다. 응답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알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갖는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전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경전의 주제별 색인에서 지식에 대한 성구를 찾아보았다. 엘마서 5장 46절을 펼쳐 보았는데, 그

곳에서 엘마는 그가 진리를 찾기 전에 여러 날을 기도하고 금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다. 나는 경전을 더 읽는 동안 금식과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영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금식 주일이 오자, 나는 영의 속삭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금식하기로 결심하였다. 금식 간증 모임에서 나는 응답을 받았다. 간증에 귀 기울이던 중에, 어떤 느낌이 내 몸으로 흘러 들어와 내 영혼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다. 교회가 참되다는 응답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집에 도착한 뒤, 내 방으로 가서 침대 위에 앉아 속으로 생각했다. **교회는 참된 것이야! 나는 정말로 응답을 받았어.** 나는 다시 똑같은 느낌, 즉 성신으로부터의 확인을 다시 받았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 느낌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제이 마이클 헌터



만은 말일성도들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있는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들은 말일에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해 준다. 그 동상들은 신약에 있는 요한의 시현에서 그가 본 천사를 나타낸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14:6)

모로나이가 복음을 알리는 천사의 모형으로 사용되는데는 적절한 이유가 있다. 그가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의 금판을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2000년 2월 현재 운영 중인 70개의

성전 가운데 55개에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다음은 그 동상의 사용에 관한 간략한 역사다. (성전에 세워진 이 동상들 이외에도 뉴욕 주 구모라 언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로나이 동상이 건립되어 있다. 금월호 뒷 표지 안쪽 참조)

1. 나부 성전 천사, 미상의 공예가에 의해 제작됨 (위의 왼쪽)

1846년에 헌납된 나부 성전은 금도금한 천사가 있는 최초의 말일성도 성전이였다. 교회의 친구이며 옹호자였던 토마스 엘 케인 대령이 1846년에 나부 성전 경내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서부로 떠난 후에도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뒤에 남은 성도들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높은 탑 꼭대기에서 있는 천사와 나팔에 금도금하는 일까지도 완수했다.”

2. 솔트레이크 성전 천사, 사이러스 델린 (오른쪽과 맨 오른쪽)

1893년에 헌납된 솔트레이크 성전은 공식적으로 모로나이라고 밝힌 천사를 성전 꼭대기에 세운 최초의 성전이였다. 윌

포드 우드럽 당시(1807~1898) 교회 대관장이 말일성도가 아닌 예술가 사이러스 델린에게 동상 제작을 의뢰했을 때 델린은 거절했다. 델린의 부모가 한때 활동적인 말일성도였음을 안 우드럽 대관장은 델린에게 모친과 함께 상의해 보도록 권유했다.

델린의 모친은 아들이 제작 의뢰를 수락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이 천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자 모친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그렇게 얘기하지? 난 나를 천사같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니?” 모친은 아들에게 제작을 위한 영감을 얻기 위해 말일성도 경전을 연구하도록 권고했으며 그는 모친의 권고를 따랐다. 그는 로브에 모자를 쓰고 한 손에 나팔을 치켜들고 서 있는 위엄을 갖춘 신고전주의적인 모습의 천사를 설계했다. 1891년10월 4일에 석고로 된 1미터 짜리 모형이 완성되었으며 곧이어 실제 크기로 제작된 모형이 오하이오주 세일럼으로 보내졌다. 그 곳에서 동으로 동상을 제작한 후 22캐럿의 금박을 입혔다. 높이 64미터의 동편 중앙탑 위에 있는 공모양의 돌 위에는 3.8미터의 동상이 서 있다.

사이러스 델린, 1861년 11월 22일, 유타 주 스프링빌에서 출생. 그의 가족은 영국에서 개종하여 1851년에 유타 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델린의 부모는 그 곳에서 장로 교회로 개종하였다. 소년 시절 사이러스는 그림 그리기와 찰흙으로 만들기를 좋아했다. 후에 그는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공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모로나이 천사’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천사와 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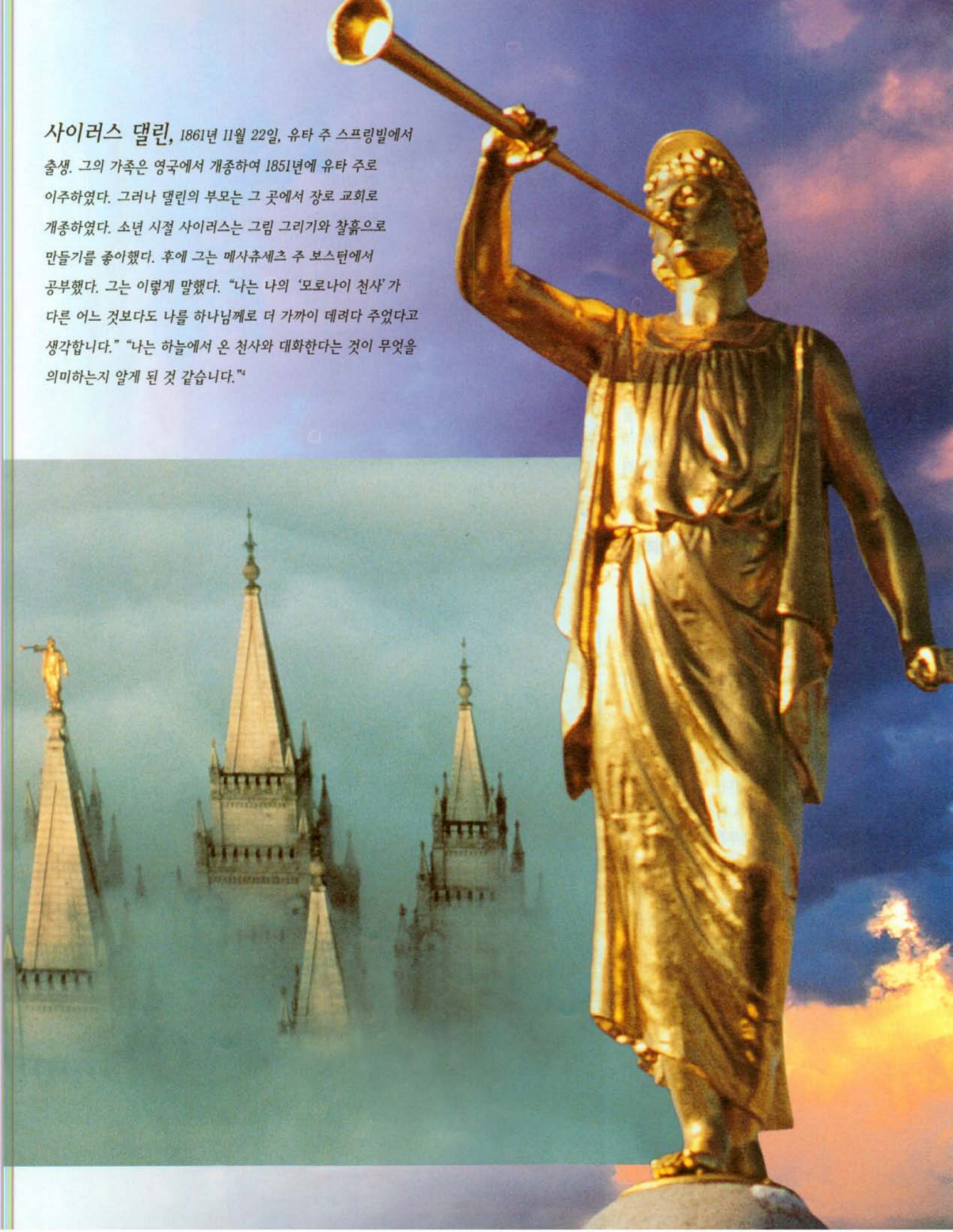




사진 촬영: 윌트 시 앤더슨, 아이다호 폴스 성전

1930년대에 토를리프 크나프스에 의해 제작되고 후에 라바르 왈그렌이 주물로 제조한 동상의 복제물들을 조지아 주 성전과 아이다호 주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볼 수 있다.(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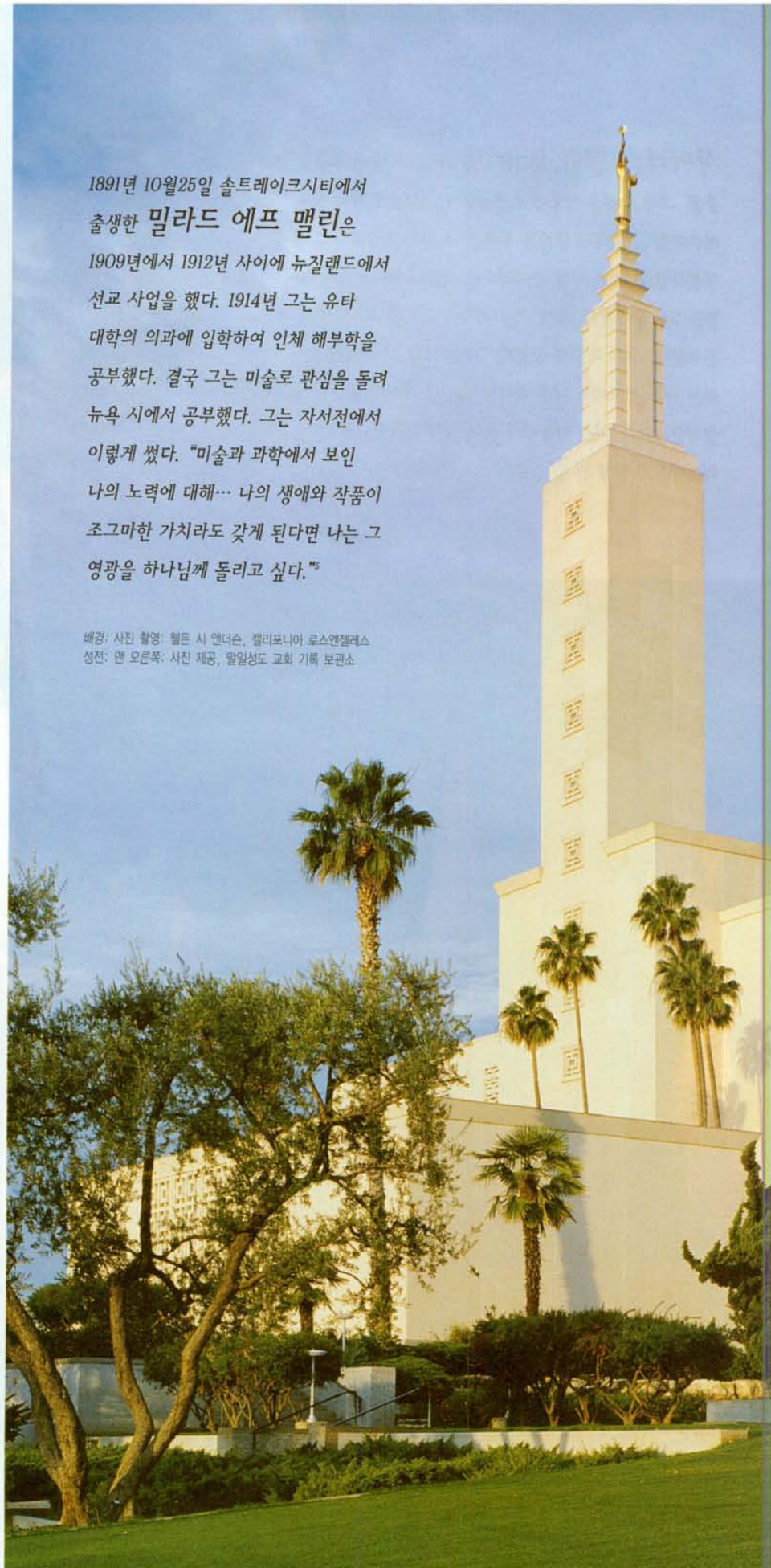
3.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 밀라드 에프 맬린 (오른쪽과 맨 오른쪽)

1956년에 헌납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은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이 있는 두 번째 성전이다. 밀라드 에프 맬린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4.7미터짜리 동상의 석고틀을 제작하였다. 이 석고틀은 다섯 조각으로 나뉘어 뉴욕 시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다. 동상의 무게는 953킬로그램이었다.

아메리카의 토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이 동상은 마야풍의 외투를 걸치고는 2.4미터 크기의 나팔을, 왼팔에는 모형 금판을 들고 있다. 이 동상은 1953년 10월 10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성전의 81미터짜리 탑 위에 놓여졌다.

1891년 10월25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한 밀라드 에프 맬린은 1909년에서 1912년 사이에 뉴질랜드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1914년 그는 유타 대학의 의과에 입학하여 인체 해부학을 공부했다. 결국 그는 미술로 관심을 돌려 뉴욕 시에서 공부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미술과 과학에서 보인 나의 노력에 대해... 나의 생애와 작품이 조그마한 가치라도 갖게 된다면 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⁵

배경: 사진 촬영: 윌트 시 앤더슨,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 맨 오른쪽: 사진 제공, 말일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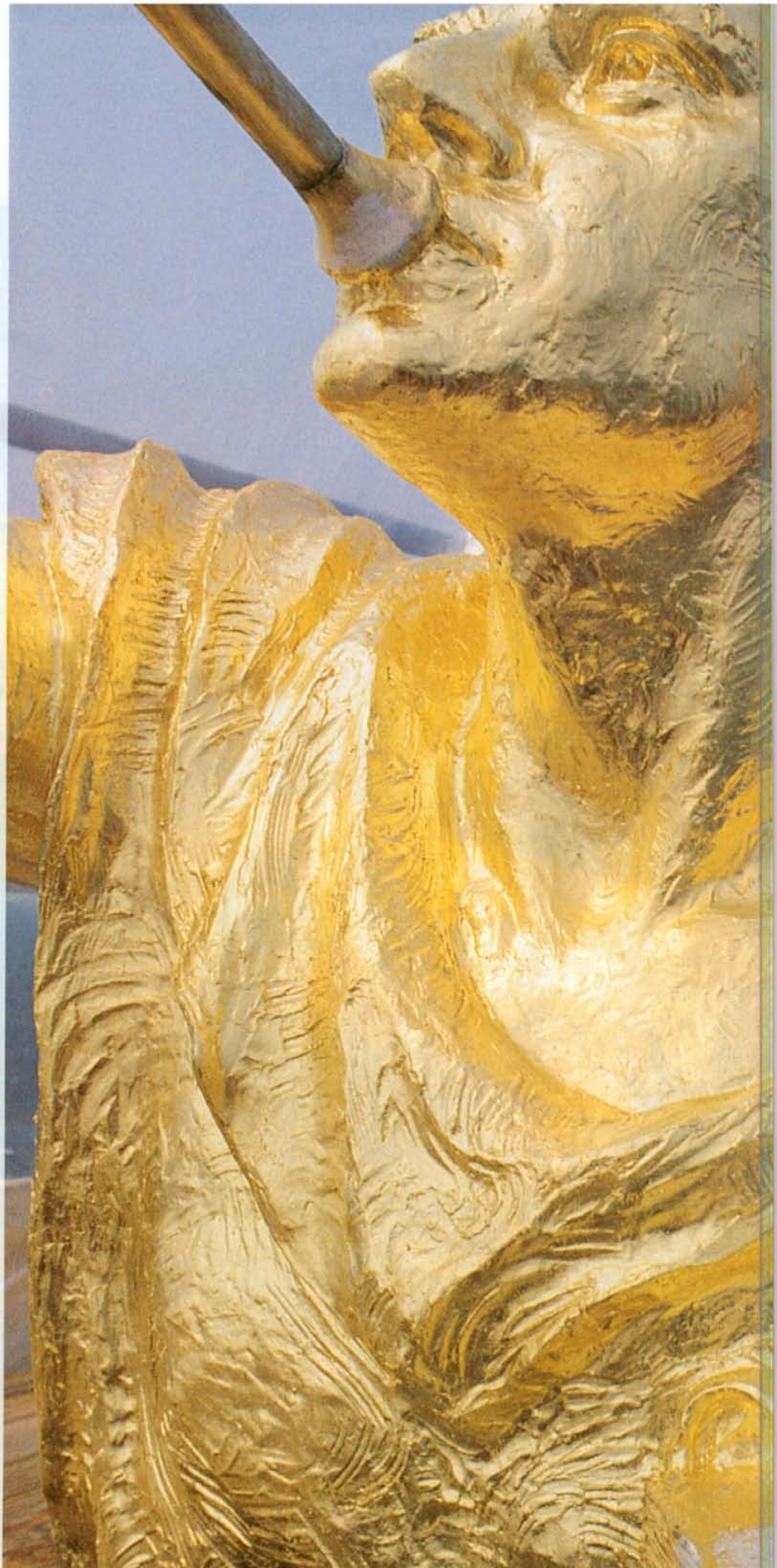


4. 워싱턴 디 시 성전 천사, 아바드 페어 뱅크스 (오른쪽과 맨 오른쪽)

모로나이 천사 동상이 놓여진 세 번째 성전은 1974년에 헌납된 워싱턴 디 시 성전이다. 아바드 페어뱅크스는 나팔을 입에 대고 왼팔에 모형 금판을 든 우아한 천사를 조각했다. 페어뱅크스 형제가 제작한 1미터짜리 모형은 이탈리아로 운반되어 실제 크기로 확대되었으며 놋쇠로 제작하여 금박을 입혔다.

실제 크기로 확대하여 점토로 만든 동상이 완성되었을 때 페어뱅크스 형제는 성전 건축가를 이탈리아로 초청하여 그것을 보게했다. 건축가의 한 사람인 키이트 더블류 윌콕스(후에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 됨)는 천사가 나팔을 불기보다는 무엇인가를 마시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윌콕스 형제는 트럼본 연주자가 입술로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페어뱅크스 형제는 윌콕스 형제의 제의에 따라 천사의 입모습을 수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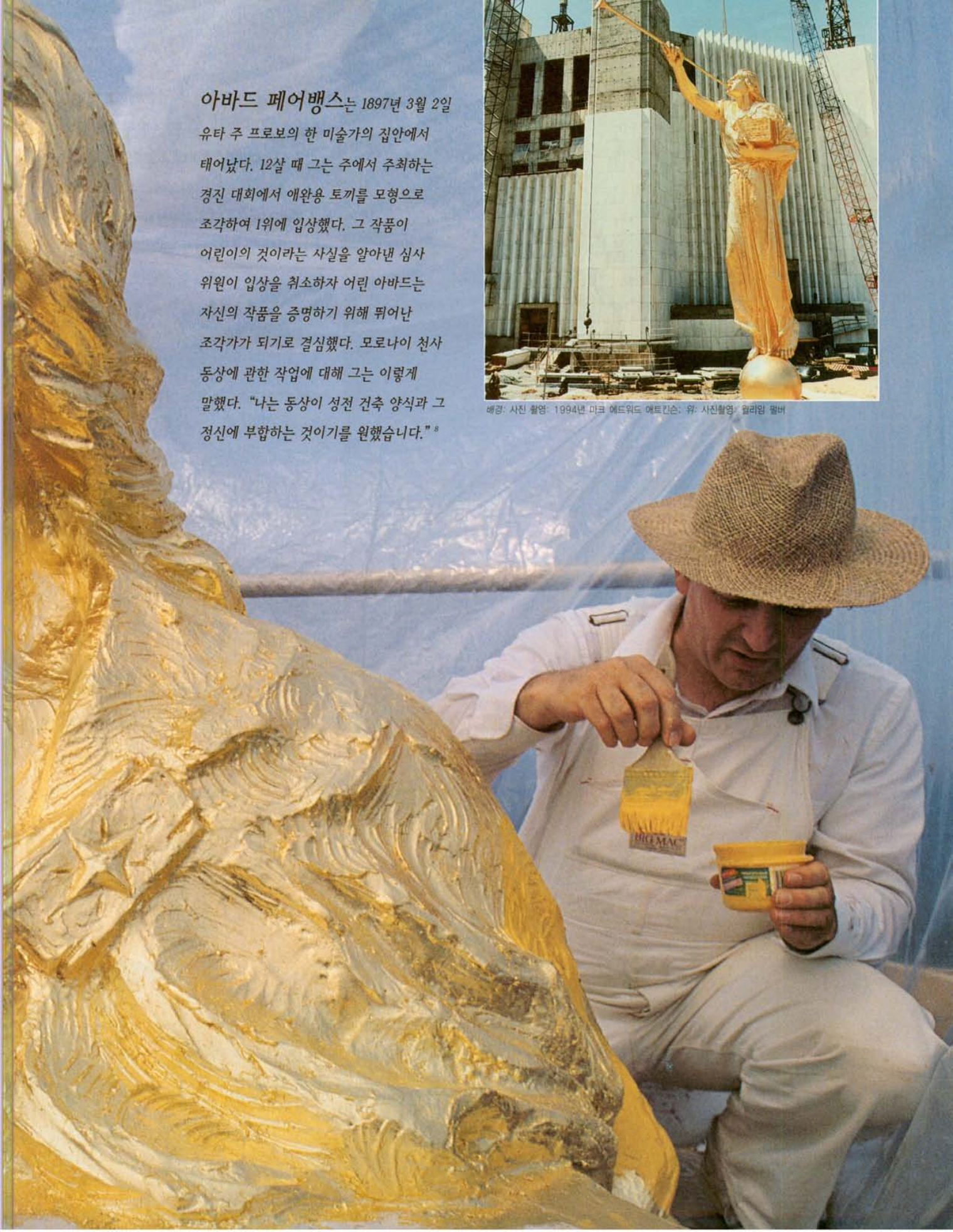
완성된 5.5미터의 동상은 무게가 약 2톤으로 지상으로부터 88미터 높이의 첨탑 위에서 있다. 워싱턴 시애틀 성전, 유타 조단 리버 성전 및 멕시코 멕시코시티 성전에는 각각 4.6미터의 놋쇠로 주물 제작된 이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



아바드 페어뱅크는 1897년 3월 2일
 유타 주 프로보의 한 미술가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12살 때 그는 주에서 주최하는
 경진 대회에서 에완용 토끼를 모형으로
 조각하여 1위에 입상했다. 그 작품이
 어린이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심사
 위원이 입상을 취소하자 어린 아바드는
 자신의 작품을 증명하기 위해 뛰어난
 조각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모로나이 천사
 동상에 관한 작업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동상이 성전 건축 양식과 그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를 원했습니다."*



배경: 사진 촬영: 1994년 마크 에드워드 에트킨슨; 위: 사진촬영: 엘리엄 멀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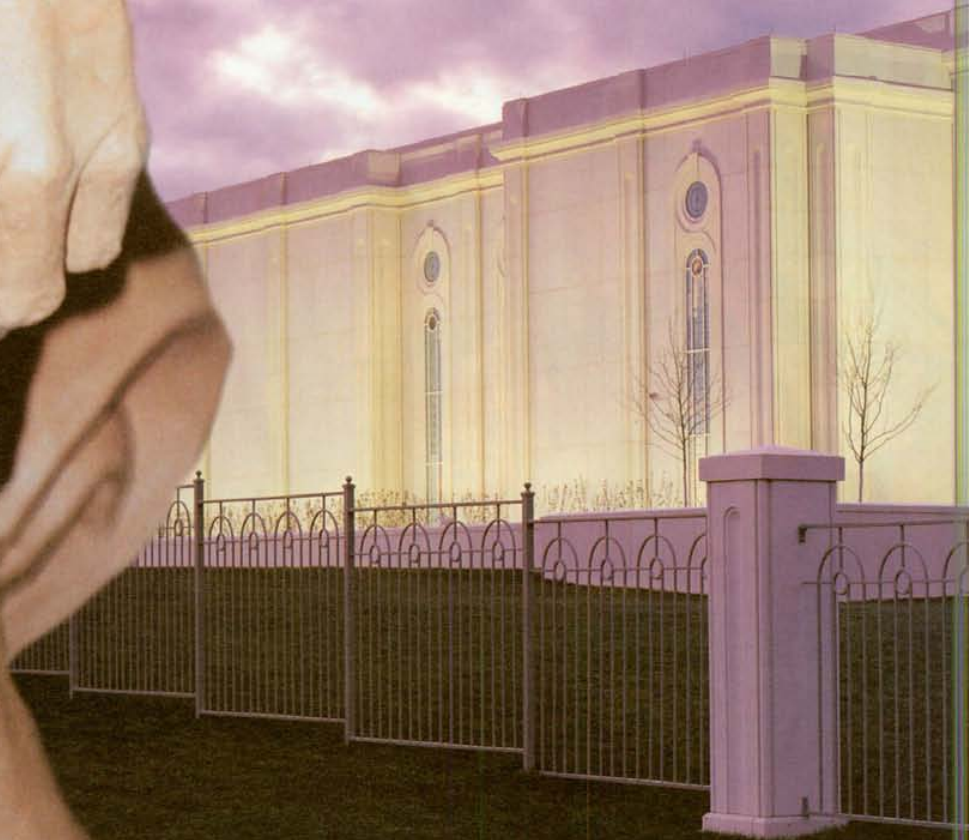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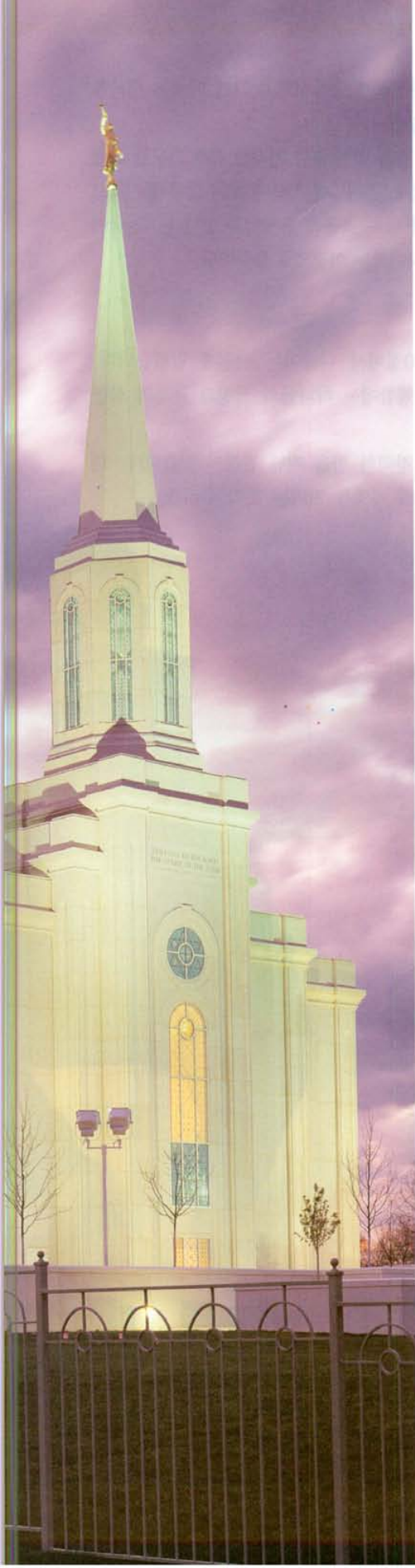


위: 사진 제공: 칼 에이 킬터; 배경: 사진 촬영:
윌트 시 앤더슨, 미주리 세인트 루이스 성전

1929년 4월 27일 유타 주 캐슬 게이트에서
출생한 **칼 에이 킬터**는 유타 대학에서
아바드 페어뱅크로부터 조각을 배웠다.
1949년에서 1951년 사이에 그는 노던
스태이트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급우 한 명이 ‘졸업 후에 무엇을
하고 싶으냐?’ 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성전 건립에 사용될 모로나이 천사를 조각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유타 주 미드베일에서 1932년 8월 13일에
출생한 **라바르 왈그렌**은 유리 섬유
주조에 고도의 기술을 지닌 전문 공예가다.
그는 유타 주 컨스에 있는 그의 작업실에서 칼
킬터의 모로나이 천사 동상의 대부분을
만들었다.





5. 모로나이 천사 동상들, 칼 에이 쿼터

(왼쪽과 위 삽입 사진)

1978년에 교회는 칼 에이 쿼터에게 새로운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을 제작하도록 위임했다. 그는 라바르 알그렌과 함께 무게가 가볍고 가격이 더 저렴한 섬유 유리 구조 과정을 개발했다.

쿼터 형제와 알그렌 형제는 두 개의 주형을 만들었다. 하나는 3미터짜리 동상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13미터짜리 동상을 위한 것이었다. 각각의 주형은 100개의 동상을 구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제조된 동상들은 무게가 159킬로그램으로 많은 성전에 놓여졌다.

6. 소규모 성전을 위한 모로나이 천사 동상, 칼 에이 쿼터 (맨 왼쪽과 아래 삽입 사진)

1998년에 교회는 다시 칼 에이 쿼터에게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 제작을 위임했다. 이 동상은 소규모 성전을 위한 것이었다. 2.8미터의 높이에 금박이 입혀져 있다. 천사의 모습은 쿼터의 다른 동상과 비슷하지만 체격이 좀더 당당하고 약간의 움직임 보여 주는 듯하며 왼손은 좀더 느슨해 졌다. 새로운 모형은 1년 안에 표준 경전을 다 읽는 손주들에게 줄 기념물로 쿼터 형제가 제작한 60센티미터 크기의 유리 섬유 동상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

주

1. 가끔 건축법, 문화적인 오해 또는 건축 디자인 때문에 모로나이 천사의 동상을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다. 다음의 15개 성전에는 동상이 없다. 유타 세인트 조지, 유타 로간, 유타 맨타이, 하와이 라이에, 앨버타 카드스턴, 애리조나 메사, 스위스 버른, 뉴질랜드 해밀턴, 영국 런던,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유타 옥든, 유타 프로보, 브라질 상파울로,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2. 토마스 엘 케인, *물문*. 1850년 3월 26일 펜실베이니아 주 역사 협회에서 행한 연설 (1850년) 20쪽.

3. 렐 지 프란시스의 인용문, *사이러스 이델린: Let Justice Be Done* (1976년), 66쪽.

4. 리바이 에드가 영, "천사 모로나이와 사이러스 델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4월 234쪽.

5. Millard F. Malin 사전적 회고, 1966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Historical Department Archives Division.

6. 에드워드 오 앤더슨, "로스엔젤레스 성전,"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5년 11월, 804, 806쪽.

7. 키이트 더블류 윌콕스, *A Personal Testimony Concerning the Washington Temple*, 제5판(1955년), 31쪽.

8. "Angel Moroni Statue Chosen for Temple," *처치 뉴스*, 1971년 7월 10일, 5쪽.

9. "Karl Quilter: Glory Be!", *솔트레이크 시티*, 1996년 11/12월, 28쪽.

몇년 전 물몬경의 한 성구가 내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것은 물몬경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 가족이 다른 것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니파이가 레이맨과 레뮤엘을 떠나 광야로 간 직후의 어느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니파이는 복음 진리를 토대로 하여 한 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사회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으며,” (니파이이서 5:27)

나는 “행복하게” 산다는 말의 의미를 꼼꼼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복음과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회와 삶의 요소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생각하다가 나는 니파이의 기록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나는 니파이가 광야를 여행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내용이 담긴 니파이이서 5장 6절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과... 나의 형 샘과 그의 가족, 나의 동생인 야곱과 요셉, 그리고 여동생들...을 데리고 갔으니” 여기에 행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입니다.

니파이가 의로운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광야로 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형제 자매에게 속해 있었으며 그들은 니파이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가족만큼 소속감에 대한

우리의 필요 사항을 완전하게 충족시키고 그에 따르는 행복을 보장해 주는 조직은 없습니다.

때로 즐거운 가정의 밤을 마친 후나 진지한 가족 기도를 드릴 때 또는 모든 가족이 일요일 저녁에 식탁에 모여 앉아 활기차고 온화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곳이라면, 나에게서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계명을 지키

니파이이서 5장 10절에서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범사를 행함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의 심판을 따랐으며”

여기에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지닌 진리가 있습니다. 의롭게 생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행복해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행복하게 해줍니다. 많은 말씀을 남긴 엘마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짧막한 한 줄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니라”(엘마서 41:10) 그것은 6시 뉴스에서 보도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엘마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며 우리가 그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예외라고 믿게 하며 어쨌든 우리의 범법은 이제까지 어느 누가 저지른 죄보다 고상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믿게 하려 한다고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며 그리 하여 행복과 정 반대되는 비탄과 고통과 비참함을 맛보게 될 것

입니다.

경전

니파이서 5장 12절에서 니파이는 “늦쇠판에 새겨진 기록...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째서 행복한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까? 정규적으로 경전을 읽는 사람은 더 분명한 견해, 더 순수한 생각과 더욱 진지하고 사려 깊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와 필요 사항에 대한 해답을 경전에서 찾으려 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경전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며 유혹을 거부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해줍니다. 경전은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다른 개인적인 불행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위안을 줍니다. 경전을 읽으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 일치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매일 성경과 회복된 경전을 공부할 때 번치않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일

니파이서 5장 17절에서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니파이는 백성들을



질 수 있는가

권하여 근면하게 하였고, 스스로 나가 일하게 하였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정규적으로 알한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밭일, 바느질, 요리, 빵굽기, 자동차 수리, 집수리 등 그 종류는 다양하며 따라서 그러한 일을 통해 얻는 행복과 성취감도 다양합니다.

성전

니파이는 그가 살았던 매우 흥미로운 사회의 또 다른 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니파이이서 5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니파이는 성전을 지었느니라.” 니파이가 건립한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성전과 다른 점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같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해 주며 행복을 얻는데 필요한 의식과 성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성전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가르쳐지는 곳이 성전이며 그 곳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더 큰 이해를 얻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교회 봉사

니파이이서 5장에 기록된 니파이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요소는 행복한 생활에서 교회의 부름과 봉사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26절에서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내 백성들의 땅의 제사와 교사가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참된 기독교인의 봉사가 오로지 제도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봉사 활동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고 조직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 보살핌과 봉사를 받는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한 행복의 근원이 마련됩니다. 니파이는 몸소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봉사하는 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완전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



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각 지체를 필요로 하”(고리와 성약 84:110)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격려해 주며 봉사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행복합니다.

다른 요소들

니파이서 5장을 지나 계속 읽어 나가면 우리는 니파이와 그의 백성이 그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굳건히 그리스도를 바라”(니파이서 25:24)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세주와 그의 가르침은 니파이가 힘을 모을 수 있었던 중심점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예언자가 그랬듯이 그는 오직 죄사함을 통해서만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구세주의 가르침만이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고대와 현대의 모든 경전에서 니파이가 말한 행복의 원리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나는 자주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거듭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호한 구절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이유를 의아스럽게 생

각합니다.

나는 니파이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요소들을 모두 제시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는 우리에게 모든 요소들을 다 열거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점검표에 나와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속적으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간단 명료한 공식은 없으며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온전하게 행복하기를 의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과 슬픔, 역경 가운데서 알게 되는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주변에서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관찰할 것을 권유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리들이 그들의 삶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1995년 9월 19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영적인 말씀에서 발췌.



물론 메시지

정말

훌륭합니다

그 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매체의 나쁜 것들을 좋은 것들과 함께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경험 전체를 망칩니다.

(빌립보서 4:8; 모사이아서 4:30; 엘마서 37:36; 신앙개조 1:13)

생각과 행동에서의 순수성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일성도들에게 “세상의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격려하고 있다. 또한 “세상에서 수고하면서 그 불결함에 물들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강해지십시오. … 그리고 자신의 고결함으로 행동을 다스리십시오.”라고 권고한다. 그의 권고는 “끊임 없이 턱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46:33) 고 말씀하신 주님의 훈계를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리아호나, 1999년 7월호, 60쪽)

우리 생각을 통제함

순결한 생활은 순결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대관장은 그 과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뿌리면 영원한 운명을 거둔다.”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10쪽; quoting E. D. Boardman; in Conference Report, April 1962, 7)

순결치 못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늘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음에 자리잡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은 감리 감독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중요한 권고를 주었다.

“첫번째, 우리는 저속한 이야기, 농담, 사진, 대화 및 많은 사탄의 산물들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 흐름을 차단했다고 가정하고—흐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차단하는 것입니다—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우리 마음의 저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여과 장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활력을 주는 생각이 다시 깨끗해져서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불순결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매우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고 매일 밤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청결하게 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두번째, 여과 과정에 정제하는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더하는 일은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은 아니더라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다른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선을 행할 때 오는 상쾌함으로 영을 살찌우

십시오. 간단하지만 매일 행하십시오. 그것은 만나는 사람에게 유쾌한 인사를 나누거나, 집에만 있는 사람을 잠시 방문하는 일, 전화 또는 안부의 메모를 전하는 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계명을 하나 택하여 그로부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순결하게 함”, *엔사인*, 1980년 11월호, 38~39쪽)

성신으로부터 오는 도움

우리가 순결함을 지니려고 노력할 때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은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세리 엘 듀 자매는 이렇게 설명했다.

“성신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유혹에 대항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겸손해지고 회개하도록 고취시켜 주며,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며, 우리에게 지혜, 신성한 격려, 마음의 평온 변화의 소망… 등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95쪽)

영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행동에 반영되는 개인적인 순결함에 서서히 다가 가게 된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약속하신 다음과 같은 궁극적 보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8)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 언자 요셉 스미스는 인간에게 신앙은 “모든 행
동의 동기”라고 가르쳤다.(요셉 스미스편, 신앙
강화1985년,1~2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옳은 일
을 선택할 힘을 주기도 하고 병고침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고쳐 주는 힘을 주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적과 화해하고자 하는 동
기를 부여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의 마
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금식하거나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신앙은 우리
에게 주님을 믿도록 가르치고 우리에게 중요한 야망까지
도 희생하도록 가르친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위한 주님
의 지도는 우리의 것과 아주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훨씬
났다. **♥** 어느 곳이든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회원이 있는 곳이면 주님께서서
는 그 곳에 계셔서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축
복해 주신다.

“나는 영원한 가족을 원해요.”

알폰소 카스트로 바즈케즈

23세의 나이에 나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젊은이로서 원하는 모든 것
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립했으
며 좋은 직업도 갖고 고등 교육을 거의다
마쳤다. 삶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부모님께서는 내게 훌륭한 원리들을 가르
쳐 주셨으며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발전
시킬 능력을 갖게 해 주셨다. 나는 아름다

운 한 젊은 여성과 교제 중이었다. 내게
있었던 유일한 문제는 우리 사이에 종교
에 관한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
이었다. 그녀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었고 나는 아니었다.

나는 이미 선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었
다. 그들은 내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연하게” 그곳에 와 있곤 했다. 나는 첫
번째 토론을 여러 번 공부했지만 선교사
들은 내게 경전을 읽거나 기도를 하게 하
지는 못했다. 우리는 결국 두 번째 토론으
로 접어 들지를 못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교회로 끌어 들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았지만 나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이미 만
난 여러 회원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기
는 했지만 일요일을 교회에서 보내고 싶
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축구를 하거
나 영화를 보러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러 번 논쟁이 있고 난 어느 날 여자
친구와 나는 시로 만나는 일을 중단했다.
나는 그녀가 보고 싶었으며 그녀가 지닌
고결함과 덕성 그리고 성숙함에 대해 생

나는 그녀가 안전하다는 말을 했을 때 몹시
당황했다. 동시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닌 표준은 내가 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높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나러 갔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도 나를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는 그녀에게 교제를 계속하자고 했다.

그녀가 단호하게 안된다고 했을 때 몹시 당황했다. 동시에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생각했다. 그녀가 예라고 말하기를 원하면서도 안된다고 말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당황한 상태에서 마음을 수습한 나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흐느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영원한 가족을 원해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나도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의 내부에서는 영원한 가족에 대해 그녀와 똑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욕망이 일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선교사와 토론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3주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나는 그날 밤 내가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그것은 성신이 내게 준 속삭임이었다. 나는 현재 스물 다섯 살이며 멕시코 과달라하라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나의 여자 친구도 현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나는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있게 해주신 것과 충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또한 그녀의 충실함에 대해 나의 여자 친구에게 감사한다. 영원한 가족에 대한 그녀의 소망은 나로 하여금 그러한 축복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가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움베르토 아테 카위

선교 사업이 거의 끝나 갈 무렵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브라질의 레시페에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내부에 있던 성도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희생과 노력을 다한 후에 성전과 집을 뒤에 두고 나부를 떠나야 했던 그들을 기억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수행했다.

그런 후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느 날 우리가 큰 희생을 치루고 얻은 소중한 어떤 것을 가져 가신다면 그분을 기억하겠는가?

나는 내가 왜 그런 의문을 가졌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자신이 내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을 느껴 보려고 했

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충분한 신앙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나는 바로 그날 밤 그러한 시험이 내 앞에 놓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기 며칠 전, 나는 선교 사업 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다가 음악에 대한 경력을 쌓기로 했다. 선교 사업을 하기 전에 나는 매일 여섯 시간 이상 피아노 연습을 하였으며 음악 학교에서의 과정을 이수했다. 최근에 선생님이 내게 편지를 보내 피아노 연주가로서의 경력을 쌓는 일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그날 밤 세 명에게 침례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집회소에는 침례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레시페 센터로 가서 침례식을 가져야 했다. 그날 밤은 비가 많이 내렸으며 도시는 휘발유 부족으로 택시를 잡기가 무척 어려웠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 블럭 쯤 떨어진 곳에 택시가 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뛰어갔다. 비 때문에 안경에 습기가 차 내가 뛰어가는 길에 팝콘 장수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수레를 보았을 때 이미 나는 멈출 수가 없었으며 결국 그 수레와 충돌하고 말았다. 나는 왼쪽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팝콘 장수 수레를 보았을 때 나는 멈출 수가 없었으며 결국 수레와 충돌해 왼쪽 손목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손목의 힘줄 몇 개가 끊어지고 왼손의 두 손가락이 마비되어 있었다. 수술실에 자리가 없어 곧바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귀환해야 했으므로 의사들은 상처를 꿰맨 뒤 상파울루에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라고 했다.

귀환하자마자 나는 부친으로부터 신권 축복을 받았으며 상파울루에서 가장 뛰어난 손 수술 전문의에게서 치료를 받았다. 나는 빨리 회복되었다. 많은 물리 치료를 받고 난 뒤 나는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전문적인 경력에 대한 환상은 없었다. 나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현재 나는 신경 전문의로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훈련과 기회를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믿는다. 우리가 “미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잠언 3:5~6)는 것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게 힘을 주었음”

브라이언 우

1998년은 나의 생애에서 전환점이었다. 그 해에 공부가 걱정되기는 했지만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시간제 직업을 갖기로 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몹시 긴장된 상태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적개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로가 느끼는 분노는 폭발

직전이였다.

그런데 하나의 기적이 그 관계를 변화시켰다. 어느 날 저녁 말알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 두 명이 동료 직원을 찾아 직장으로 왔다. 그들은 동료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으며 나는 무심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더 듣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나는 토론을 들어 보라는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첫번째 토론에서 나는 죽은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에 가득했다. 나는 손상된 관계를 회복시킬 때라는 것을 알았다. 행복하고 영원한 가족에 대한 나의 소망은 내게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처음에 아버지는 별 반응이 없었으나 열렬하고 지속적인 기도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신앙은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다가가도록 힘을 주었다.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해야 할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오해는 풀렸으며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했으며 3개월 후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고 타이완 타이난 스테이크, 신잉지부의 회원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보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나의 부친에게 사랑을 보여 드리고 있다.

“나는 신권의 권능을 믿습니다.”

로드리고 메데이로스 오노리오

나의 할아버지 엘리지오 안토니오 오노리오는 뇌졸중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브라질에 있는 한 병원에 매우 편찮은 몸으로 입원해 계셨다. 의사들은 희생할 가망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쭙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성신이 임재하심을 느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나는 감독님께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러 갔다.

할아버지가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나는 감독님께 신권의 축복을 해주도록 부탁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나는 신권의 권능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할아버지를 고쳐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축복을 감독님께 부탁하도록 속삭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으며 감독님은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베풀었다. 다음날 병원에 찾아 갔을 때 할아버지께서 의자에 앉아 고모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되었다.

나는 이 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알고 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신권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권능임을 알고 있다. □



스티븐 빈더슨 사진, 모델 촬영

질의 응답

어떻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저는 수줍음을 타는 사람입니다. 제게는 보다 많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좋은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답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고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한 독자가 적어 보냈듯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정은 ‘몰몬이즘’의 기본 원리의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세상을 개혁시키고 교화시키며, 전쟁과 분쟁을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을 서로 친구와 형제로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311쪽).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좋은 친구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도움과 위안을 간구하십시오. 용기를 간구하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계는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띠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소를 많이 짓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

다. 여러분이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칭찬을 하고, 질문을 던지며, 도움을 주고, 기회가 닿는 대로 봉사하겠다는 뜻을 전하십시오. 친구를 사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자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보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친구 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과 동일한 목표와 표준을 가진 다른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 독자들이 제안하였습니다. 세미나리나 종교 교육원의 수업 및 활동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저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자발적으로 활동을 돕고 특별히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친절도 용서하고 계속해서 미소를 보여 주며 다시 노력하십시오. 학교, 교회,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는 여러분의 바람과 같이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자들의 대답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와드 또는 지부 활동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곧 수줍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레네 마린호 멘테스,

아스날 지부,

리우데자네이로 브라질 니테롤 스테이크



프린치스코 페졸리



크리스티나 지 당간



에두아르도 모레이라 장로



다르멜리 소아레스 레치



페리아 세플루 사우바오



아구이날도 알베스



클라 소피아 레알 사라비아

수줍어 하는 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프린치스코 페졸리,
버가모 제1와드,
이탈리아 밀란 스테이크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의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십시오.(이더서 12:27 참조) 교회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친구에게 진실되게 대화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가 때문에 친구들을 존중하십시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들과 그들의 관심사를 파악하십시오.

크리스티나 지 당간,
아구 제3와드,
필리핀 아구 스테이크

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세미나리에 다니면서, 저는 제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 참되고 진정한 친구들을 사귄 수가 있었습니다.

에두아르도 모레이라 장로,
브라질 고이아니아 선교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영은 우리가 수줍음을 이겨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도록 도

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소피아 베아트리츠 리오야 판토야,
사르코 와드,
코차밤바 볼리비아 코비야 스테이크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과 보다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후, 저는 수줍음을 이겨냈고 경전 읽기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함으로써 좋은 친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좋은 책과 잡지, 특별히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저는 좋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종교 교육원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르멜리 소아레스 레치,
파티마 와드,
조인빌 브라질 스테이크

처음에 저는 교회 활동에서 다소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그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던 만큼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져 주었으며, 우리는 재미있는 많은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마우로 게르만 술단,
라누스 제 2와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벨라네다 스테이크

수줍음은 상대방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또는 스스로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과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인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진하여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참된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 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하십시오.

로시벨 발레도 오초아,
태구시갈파 와드,
온두라스 태구시갈파 스테이크

여러분이 수줍은 반면 좋은 친구 관계를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알려 드림으로써 마음에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부끄러움을 타고 수줍어 하는 면이 없어지도록 간구하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페리아 세폴루 사우바오,
레몰리 제1와드,
우폴루 사모아 말레이시우 스테이크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제게는 항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하

나님의 자녀이며 따라서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지식으로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1)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힘찬 악수로 그들과 인사를 나누겠다. (2)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언제든지, 즉시 멈추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한다. 주님께서는 “[저의] 앞에 갈 것”이며 “[저의] 오른편이나 왼편에도 있”어 저를 감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의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4:88)

아구이날도 알베스,
알보라다 와드,
브라질 마린가 스테이크

구세주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일은 참으로 제가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세심한 관심을 보여 주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칼라 소피아 레알 사라비아,
아르투로 프래트 와드,
산티아고 칠레 로 프라도 스테이크

제 자신이 수줍음을 곧잘 타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걸지 않을 때의 느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이후로, 저는 교회에서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환영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키워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말을 걸고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저는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하이디 비 세바스찬,
산티아고 제2와드,
필리핀 산티아고 스테이크

여러분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 주신다면 질의 응답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을 2000년 10월 1일까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AND ANSWERS,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여러분의 답은 여러분의 언어로 타자 치거나 깨끗하게 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명, 나이, 주소와 와드 및 스테이크 (지부 및 지방부) 명칭을 꼭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사진도 보내 주십시오. 사진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답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내용이면 요청에 따라 이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받은 대담 가운데 몇 가지를 선택하여 실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저는 와드에서 청소년 활동을 계획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대체로 활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활동을 보다 흥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볼리비아

풍성한 축복

주디 시 올슨

사진 촬영: 글쓴이

남미의 이 나라에 있는 교회는 복음 진리에 대한 열성과 헌신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어느 일요일 이른 시간에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어린 자녀를 둔 한 가족이 스테이크 외곽에 있는 와드에 참석하기 위해 45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의 가파른 자갈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스테이크 청남 회장이고 아내는 스테이크 청녀 회장이다. 버스 요금이 부족해서 걸어가야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드까지 가는 데는 두 시간이 걸린다. 그들이 두 시간씩 걸어서 교회로 가는 것은 헌신적인 복음 생활의 기쁨을 깨달은 충실한 볼리비아 말일성도들의 한 예이다.

볼리비아 라파스의 소포카치 스테이크장인 안드레스 파체코는 “우리 회원들의 신앙은 강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희생합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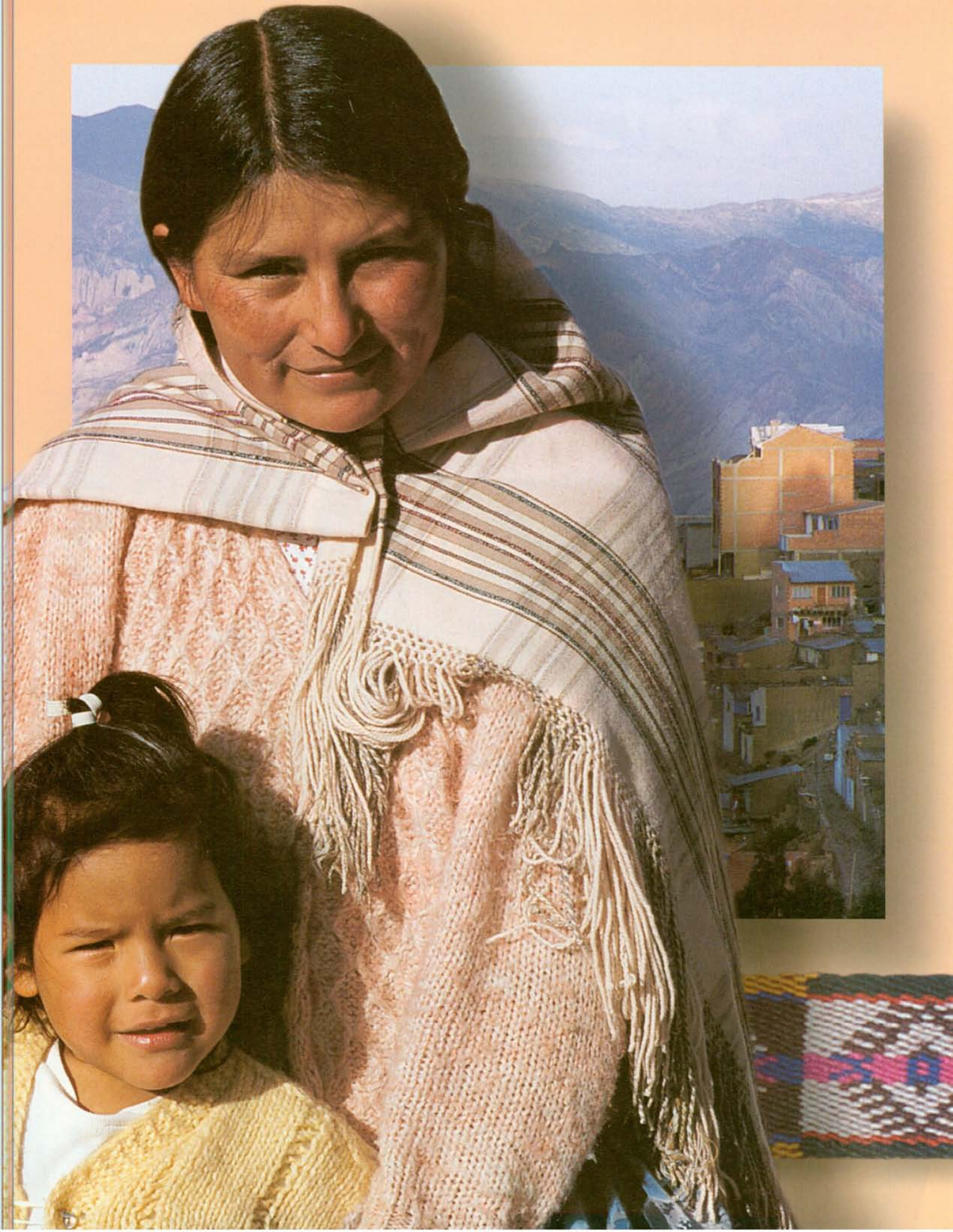
남아메리카 서부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레네 제이 카브레라 장로는 볼리비아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는 두 가지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나는 경제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해로운 전통입니다.” 그 두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떤 전통은 축제들과 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것에는 종종 몇 달치의 가족 급료를 사용하여 며칠씩 마시고 춤추는 것들이 포함된다. 카브레라 장로는 “우리의 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복음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서 발전하면서 해로운 전통을 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964년 선교사들이 볼리비아에 처음 도착한 이래 교회는 볼

리비아 사람들이 옛날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전통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있다. 카르멘 몰리나와 루이스 몰리나는 볼리비아에서 교회에 처음 들어온 회원들에 속한다. 몰리나 자매는 “두 선교사들이 우리 집 문 앞에 멈춰 서서 상호부조회에 나오도록 권유했는데 그 모임은 어떤 집에서 열렸어요.”라고 말한다. “저는 그 모임에서 행복감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그것에 관해 이야기했죠.” 루이스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그 가족은 1965년에 교회에 가입했으며 그는 볼리비아에서 장로로 성임된 첫번째 남자가 되었다.

그들의 아들인 폴렌도 몰리나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 중 하나는 우리 가족이 교회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는 현재 볼리비아 엘알토의 사텔리테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저는 토요일을 무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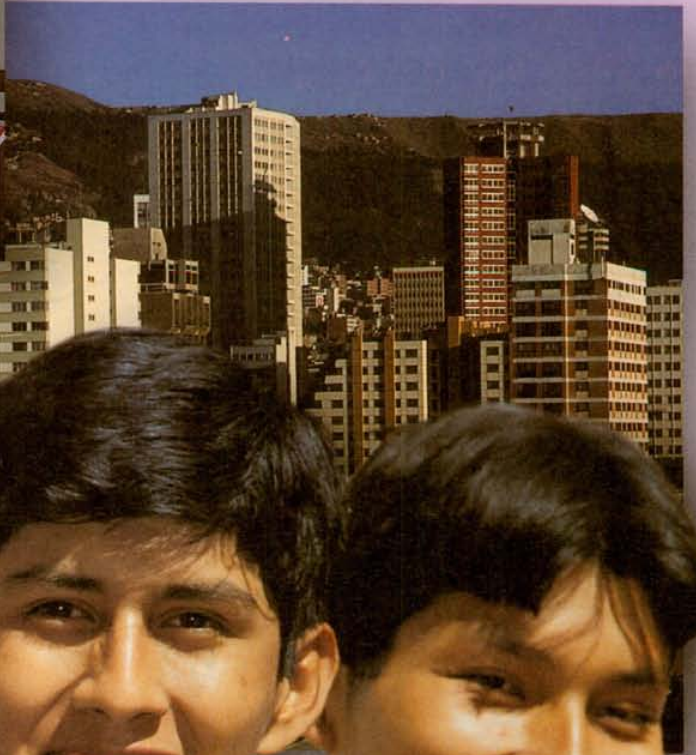
오른쪽: 세페리나 라미레스와 딸인 마리아 퀘날라타가 볼리비아 라파스의 미라플로레스 스테이크 산 안토니오 와드에 참석하고 있다. 배경 사진: 고원 도시인 라파스.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다림질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교회에 갔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모두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는 그렇게 함께 걸어다녔던 것에 대해 정다운 추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카르멘과 루이스는 둘 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 해에 걸쳐 많은 부름을 받아 충실하게 봉사해 왔다. 1979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이 볼리비아를 방문하여 최초의 스티





이크를 조직하였다. 그 곳에 있는 동안 그는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땅을 재헌납하였다.

그때 이래로 교회는 계속 발전하여 21개 스테이크와 9개 지방부에 회원 수가 100,000명이 넘게 되었다. 그 대부분을

일세대 지도자인 20대와 30대들이 관리하고 있다. 카브레라 장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에게는 130개 이상의 예배당과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서 강건하게 성장하고 준비를 갖추는 두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세대입니다."

계속 수가 늘어가는 볼리비아 성도들은 해로운 전통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는 복음의 가르침 속에서 힘을 발견하고 있다. 세 개 도시에 살고 있는 회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회원들이 받은 축복이 크다는 것을 알아 볼 수 있다.

라파스의 발전하는 지도자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 중 하나인 고도 3,600미터의 알티플라노를 형성하는 주발 모양의 4킬로미터 넓이 계곡에 세워진 도시 라파스의 가파른 산비탈에는 매일 저녁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인다. 라파스의 보초병은 여름에도 꼭대기가 눈에 덮여 있는 6,400미터 높이의 봉우리가 있는 장엄한 일리마니 산이다. 백만 명이 사는 이 도시는 택시와 미니 버스로 가득 차 있고 거리는 가파르며 사람으로 넘친다. 도시의 도처에 뿔뿔하게 들어찬 건물들 앞 좁은 인도에는 상점들이 바짝 붙어 있다. 뒤에는 보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다. 활기 있고 화려한 라파스는 6개 스테이크의 본거지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스테이크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라파스에서 충분한 수의 지도자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교회가 급속히 발전하여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에

왼쪽: 윌터 이 구즈만(중앙)과 그의 친구들 에드슨 이바 에즈(왼쪽)와 마르코스 로날드 로메로가 미라플로레스 스테이크의 파티마 와드에 참석하고 있다. **삽입 사진:** 미라플로레스 스테이크의 코파카바나 와드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배경 사진:** 라파스는 4킬로미터 넓이의 계곡에 세워진 도시다.

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는 도전이다. 새로운 개종자가 부름을 받으면 흔히 그들의 약한 간증은 더욱 강해진다.

미구엘 헤레라와 그의 아내 테레사도 예외가 아니다. 미구엘은 "우리는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교

회에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어떤 사고를 겪은 후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은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 부분에 대해 옳다고 느끼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날 테레사는 어떤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 "저는 아이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친구는 제게 *리아호나리코* 불리는 잡지를 빌려 주겠다고 했어요."라고 설명한다. 곧 두 명의 선교사가 나타났다.

테레사와 미구엘은 복음을 공부할 때 스테이크 축복사인 다비드 앙구로와 그의 대가족의 도움을 받았다. 미구엘은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은 우리가 가정 생활에 대해 찾고 있던 훌륭한 모범이었습니다." 미구엘의 아들이 맹장염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앙구로 형제는 그가 낫도록 축복해 주었다. 나중에 수술을 할 때 의사는 맹장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 축복은 헤레라 가족들로 하여금 새로 찾은 신앙과 신권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1996년에 침례를 받고 얼마되지 않아서 미구엘과 테레사는 둘 다 그들을 놀라게 한 부름을 받았다. 미구엘은 감독단 보좌로 테레사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볼리비아 라파스의 미라플로레스 스테이크장단 제1보좌인 빅터 휴고 아그라몬트 형제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려되었지만 "테레사의 이름이 계속 우리들에게 떠올랐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부름이 주어졌고 테레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미구엘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키워 주고 채워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게된 가족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다른 많은 부름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지도자들이 필요함에 따라 그들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런 다음 부름을 받게 했다. 호세 아세도는 독신 성인으로 페루의 리마에 살



왼쪽:볼리비아 라파스의 소포카치 스테이크 세이스 데
아고스토 와드의 청녀들. 아래: 루시오 질 디에스 감독과
아내인 로스민다와 자녀들. 배경 사진: 산타크루스의
푸른 초목.



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결혼하고 싶었고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얻은 다음 시골로 가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날이 흘러서 휴가가 끝나갈 때쯤 그는 라파스로 가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오랜 시간을 여행하여 그곳에 도착해서 일요일에 한 지방부 대회에 참석했다. 예배실에 앉아 있을 때 합창단에 앉아 있는 어떤 젊은 여성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모임이 끝난 후 그는 로사우라 세인즈를 만났는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세 시간쯤 흘렀을 때 그들은 진지하게 사귀어 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4개월 후인 10월에 그들은 약혼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결혼했다. 호세는 “우리는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한다.

아세도 가족이 라파스로 이사오자 호세는 볼리비아 라페즈 콘스티튜션 스테이크의 놀테 와드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와드 감독으로서 와드 회원들이 부름 받은 다른 사람을 지지해 주고 자신을 희생하여 봉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사랑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그들에게 사랑을 표하고 또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가족이 축복 받기 위해 더욱 화합

하도록 간구합니다. 가정에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 와드에도 사랑이 커집니다.”

아세도 감독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와드 회원들에게 부름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것을 수행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 와드 회원들은 발전하고 지도력을 키운다.

파체코 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도자들은 강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도자를 강화시키면 다음에는 그들이 회원들을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일하면 와드와 스테이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집니다. 볼리비아의 교회는 수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성숙도 면에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라파스의 여섯 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장들과 한 명만 제외한 모든 감독들이 다 볼리비아 사람들입니다.”

산타크루스의 교회가 강화됨

산소가 부족한 라파스의 공기를 맞본 후에 끈적끈적하고 습기 찬 산타크루스의 공기를 맞보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 아마 같은 나라에 그렇게 다른 두 도시는 이 두 곳 외에는 없을 것이다. 온난하고 비가 자주 오는, 아마존 유역의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볼리비아 내륙에 위치한 산타크루스는 볼리비아에서 평평하고 석유와 광물질이 풍부한 평지에 펼쳐져 있다. 이 지역은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 정원과 스페인식 테라스와 아치 통로들이 아열대성 기후 안에서 널리 퍼져 있다. 교회는 굳건하며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 6개 스테이크가 있으며 그 지도자들은 헌신적으로 회원들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개종자를 반기고 있다.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에퀴페트롤 스테이크의 벨렌 와드 감독인 루시오 질 디에스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새로운 개종자가 계속 헌신적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저는 교회에서 새로운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실직중인 젊은이었던 그는 한 가족과 함께 산속 중인 예배당으로 갔다. 그는 “구도자”(investigator)라고 소개되었다. 그는 공사장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게 뭐죠?”라고 물었다. “저는 아무 것도 조사하러(investigate anything) 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곧 복음을 공부하기(investigate) 시작했고 마침내 교



회에 가입하였다. 27세에 그는 최초로 감독으로 부름 받았다.

디에스 감독은 친구를 발견하는 것이 새로운 개종자에게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알고 볼리비아 전역의 많은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갖고 있는 상호 향상 모임의 주례 우정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것은 회원과 구도자와 새로운 개종자들 사이에 사랑과 우정을 증진시켜 주는 모임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와드 회원들은 목요일 저녁에 함께 오도록 초대와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매주 다른 가족이 임무를 지명받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밤과 아주 비슷합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가입할 때 와드 회원들은 침례식에 참석하도록 권유 받으며 그 새로운 회원은 우정 증진 모임에 초대 받는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양육합니다."라고 디에스 감독은 설명한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부름을 줍니다." 침례 받은 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는 한 가족의 경우를 보면 그 어머니는 이미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고 아버지는 장로 정원회 서기, 아들은 집사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새로운 개종자를 돌보는 것은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의 파라이스 스테이크에서 우선 순위가 높은 일이다. 스테이크 선교사들은 침례 후 18개월 동안 새로운 개종자의 발전을 주시한다.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는 길레르모 키타나는 "고등 평의회에서 두 사람이 전적으로 감독과 개종자들과 함께 일합니다."라고 말한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들을 만나러 가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부름을 받았는지 친구를 사귀었는지 살핍니다. 우리는 각 개종자가 친구를 찾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하라는 힝클리 대관장님의 권고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49쪽 참조) 그 결과 스테이크에서 최근에 침례 받은 새로운 회원의 72퍼센트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키타나 스테이크장은 교회에서 친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 그가 18세의 나이로 침례를 받던 밤에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는 만일 그가 교회에 가입한다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 침례식이 시작되기 십분 전에 길레르모는 어쨌든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집회소로 갔다. "저는 그날 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렸죠."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러나 두 주가 지나기 전에 그는 훗날 아내가 되는 여인을 만났으며 그녀는 그가 선교 사

업을 하는 동안 지지해 주는 친구가 되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치명적인 병에 걸려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갔던 것이다. 그는 삶과 죽음 사이를 헤매고 있을 때 아직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영적인 위로를 받았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주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키타나 스테이크장은 "그 이후로 저는 주님께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하며 찾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스테이크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그는 종종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런 다음 그와 보좌들은 지도자와 회원들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우리는 회원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죠." 그의 말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갖게 된 사람이 팜과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아우구스타 아바로스 데 마이다. 감독의 지시 아래 마자매는 라 카나스타 델 세 울(주님의 바구니)이라고 불리는 노력을 통해 회원들을 강화시킨다. 자매들은 매달 마지막 일요일에 기본적인 식품들을 가져와서 바구니 안에 넣는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방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 그들에게 그 식품들을 나누어 주지요."

스테이크에서는 잘 계획된 활동들을 통해 회원들의 사회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려고 노력한다. 스테이크의 연례 행사 중 한 가지는 볼리비아의 풍부한 유산을 보여 주는 포크 댄스 축제이다. 국가의 전통을 건설적으로 되살리는 이 행사는 언론의 관심을 끌어서 매년 신문에 그 기사가 실린다. 키타나 스테이크장은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 가장 훌륭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파라이스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방법을 찾는다. 상호부조회는 일년에 두 차례씩 지역의 고아원을 방문한다. 키타나 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자매님들은 아이들을 씻기고 돌보고 먹입니다. 그들은 옷가지를 기부하며 아이들이



옷을 입도록 도와주고 머리를 빗어 줍니다.” 자매들은 이 봉사 계획을 통해 100명 이상의 아기와 어린이들을 도와준다.

코차밤바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함

볼리비아 전역의 교회 회원들의 시선은 코차밤바를 향하고 있

아래: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의 에퀴페트를 스테이크 하마카스 와드의 캄페로 가족. 왼쪽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는 제랄도, (서있는 사람) 왼쪽으로부터 로드리고, 아나 카리나, 네피 호수에, 엘자, 블라디미르. 삽입 사진: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의 카오토 스테이크 이말라 와드의 청녀들. 배경 사진: 산타크루스 시 광장.



는데 그 곳에는 올해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마리오 이 구즈만 장로는 1995년 1월 21일에 당시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 회장단의 일원이었던 홀리오 이 다빌라 장로부터 걸려 온, 특별 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하는 전화를 받은 것을 기억한다. “당시 우리 중 아무도 왜 그 모임이 열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즈만 장로의 회상이다. “다빌라 장로님은 대관장단에서 보내 온 ‘볼리비아 코차밤바에 성전이 건립되도록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팩스를 읽었습니다. 모두들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울기 시작했습니다.”

코차밤바가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선정된 것은 아마 그것이 볼리비아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듯하다. 우뚝 솟은 안데스 산맥의 동쪽 비탈 2,400미터 높이에 자리잡고 있는 코차밤바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지역은 가뭄이 잦은 곳으로 1996년에는 몇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성전 건립이 발표된 후 22개월이 되는 그 해 11월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기공식에 참석하려고 모여들었다. 그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마침내 비가 오기 시작했다. 대관장님이 성전 부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도들이 폭우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비에 젖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의 희생을 잘 알고 계신다고 확신시켜 주었다.

볼리비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성전 의식을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지만 코차밤바의 4개 스테이크는 특별히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회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한번에 한 와드나 한 지부씩 성전 부지에 가서 영을 느끼도록 권유 받는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하이후아이코 스테이크장인 이반 구티에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하고 있죠. 우리는 모든 가정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두게 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또 성전 추천서를 받지 않은 사람을 알아내서 그들을 방문하고 추천서를 받을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지요. 그 결과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가 오고 있어요.”

하이후아이코 스테이크의 코스모스 와드에서는 감독단이 금요일 저녁마다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한다. 감독단 보좌인 밀톤 아

알라 형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 주는 새로운 개종자를 방문합니다. 그 다음 주는 활동이 저조한 가족을 방문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유 중 일부는 성전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아알라 형제는 “그것은 코차밤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참으로 기쁩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와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성전 준비반을 열고 있다.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우니베르시다드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마리아 메르카우 데 아귀노는 부부들을 위한 스테이크 모임을 열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여성이 존중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자매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강화시킬 방법을 찾는 것은 그들이 성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켜 준다. 그러면 성전은 그 가족이 더욱 강화되도록 축복해 줄 것이다.

가족들이 성전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안토니오와 글로리아 이 아비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야비리 형제는 교회의 회원이 된 것과 성전에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잘 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삶에 복음과 성전 축복이 있기에 자녀를 키우는 것이 더욱 쉽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 방법 즉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은 먼저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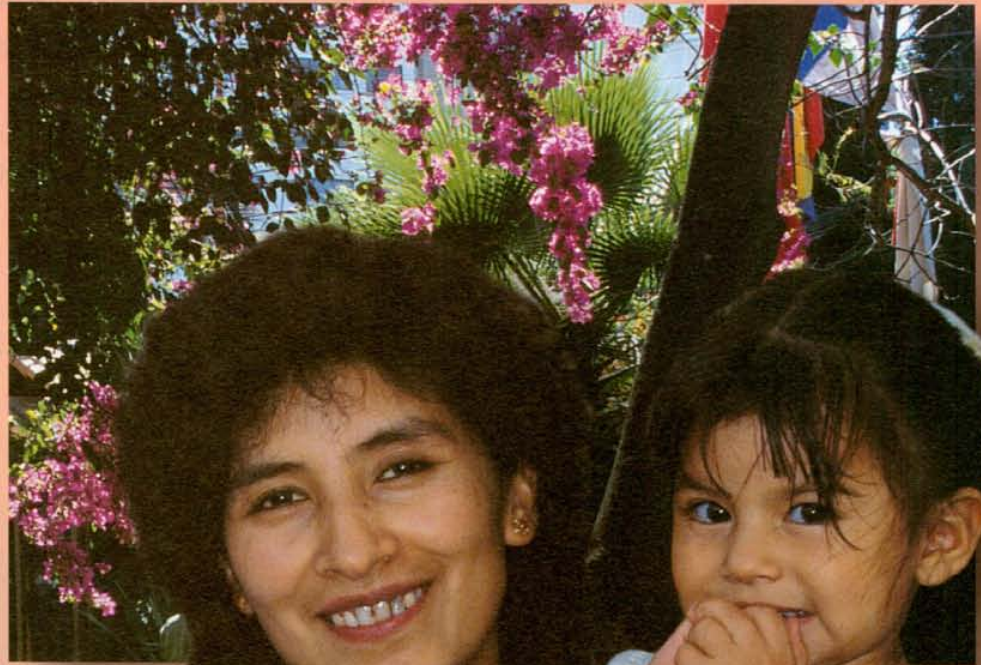


우니베르시다드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는 이야비리 형제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교회는 발전할 것입니다. 저는 제 부름을 통해 선교 사업을 할 기회를 얻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업을 상징합니다."

볼리비아 전역의 말일성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다.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한 개인적인 준비와 헌신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요일 아침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오랜 시간을 걸어서 교회로

가는 일도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주님께 자신의 성실한 마음을 바치는 길이라고 여긴다. 볼리비아 전역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은 바로 그러한 순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

아래: 볼리비아 우니베르시다드 스테이크 카라 카라 와드의 에드가 발데르 발데라마 감독과 그의 아내인 에디스와 자녀들. 삽입 사진: 볼리비아 코차밤바 성전. 배경 사진: 코차밤바의 초목.



경전을 우리 삶에 비추어 봄

조지 에이 호튼 2세 사진 촬영: 윌트 시 앤더슨

경전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유력한 도구이다. 다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경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며, 또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속성들을 얻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경전을 탐구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우리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몇몇 구절을 접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구약전서의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가르침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회원 각자에게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르침에 담겨진 기본적인 원리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에게 널리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경전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인가?(니파이일서 19:23 참조)

첫째, 우리는 주님의 예언자들이 항상 강조하여 온 진리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의로운 원리와 구원 의식은 어느 경론의 시대이든지 똑같았다. 신앙, 회개, 침례, 용서, 성신의 은사를 받음, 그리고 끝까지 견딤과 같은 원리들이 태초부터 가르쳐져 왔다.(모세서

5:58, 6:51~60, 8:24; 갈라디아서 3:8; 히브리서 4:1~2 참조) 경전의 곳곳에서 교훈과 모범으로 가르쳐진 또 다른 원리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출애굽기 20:3~5; 레위기 19:18; 마태복음 22:37~39; 모사이야서 23:15; 모로나이서 7:46~48; 교리와 성약 59:5~6 참조), 계명을 지키는 것(신명기 6:17; 요한복음 14:21; 니파이일서 15:25; 교리와 성약 18:42~43 참조), 신앙에 따라 생활하는 것에 따르는 힘(히박국 2:4; 히브리서 11장; 니파이일서 26:12~13; 교리와 성약 20:29)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우리는 일부 계시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주어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요셉 스미스, 요셉 스미스의 개인 기록, 단 시 계시 편집 [1984년], 420~421쪽 참조) 예를 들어, 방주를 지으라는 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계시, 이스라엘

영광의 길로

을 속박에서 인도해 내라는 계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계시, 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라는 계시는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시에는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여전히 들어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를 죽이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겠지만, 다윗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신앙을 행사할 필요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였던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으로 바칠 준비를 하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레이밴과 같은 이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니파이가 하였던 것처럼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니파이일서 3:7)

셋째, 우리는 주님께서 지혜 가운데 때로 그분의 가르침을 변경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심을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전대나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마태복음 10:9~10 참조), 훗날 그들은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누가복음 22:36)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에 덧붙여, 사도들은 처음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마태복음 10:5)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훗날 모든 나라에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마태복음 28:19)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들이 있다.(교리와 성약 52:22, 56:4~8 참조) 경전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경전을 공부해야만 한다.

넷째, 우리는 살아 계신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경청함에 따라, 경전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비취볼 것인가에 관하여 분명한 신호를 받게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르스 알 맥קי긴 장로(1915~1985)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 모두를 위한 합당한 진로는 교회의 주된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영감의 영에 의해 인도되고 있으며, 교회의 관례는 경전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Doctrines of the Restoration”, edited by Mark L. McConkie [1989년], 67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었다. “모든 [경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디모데후서 3:16~17) 사도 바울이 모든 경전이라고 말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어떤 성구가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이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검사를 적용해 볼 수 있다. 나의 경전 해석이 (1)표준 경전, (2)현대의 예언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3)성신의 증거와 조화를 이루는가? 만일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배운 원리를 적용하는 가운데 자신있게 경전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며 나아갈 수 있다. □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이를 죽이라는 요청을 받지는 않겠지만, 다윗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같은 신앙을 행사할 필요는 있을 수 있다.

명예로운 귀환

아놀드 레먼

그림 케이스 라슨

농구 연습을 하던 도중에 리바운드 공을 잡기 위해 열다섯 살 된 앤디 투이투포의 두 발이 농구장 바닥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허공을 가로지르는 앤디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는 소년이었다. 그는 외모도 훌륭했고, 인기도 있었으며, 우리 유타 와드의 교사 정원회에서 활동적이었으며, 학교 농구팀에도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두 발이 바닥에 다시 닿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튼튼한 몸이 바닥에 나뒹그러져 다시는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의사들은 금속편을 박고는 앤디의 부러진 다리에 깁스를 하였다. 그에게 고통은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오랜 날들 동안, 굳은 결심과 인내는 오히려 고통을 더 가져다 주는 듯이 보였다. 앤디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리 치료사들은 앤디를 다시 걷게 할 수는 없었다.

절망에 빠진 앤디의 부모, 폴 투이투포와 캐롤린 투이투포는 그를 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 곳에서 숙련된 의사들이 수술을 통해 앤디가 겪는 엄청난 고통의 원인을 찾아냈다. 바로 골수암이었다. 앤디는 의사들이 그의 다리를 자르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앤디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암을 치료하고 싶었다.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 며칠 후, 앤디는 감독이었던 나에게 자신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어쩌면 곧 죽을지도 모르는 한 소년에게 과연 어떠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까 나는 생각해 보았다. 나는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를 가지러 사무실로 급히 갔다. 그리고 황급히 차에 올라 앤디가 침대에 누워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그 곳에서 앤디가 침착하게 접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앤디에게 그가 지닌 육체적 힘과 평안을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가정의 밤에서 배운 것들에서요."라고 그가 주저없이 대답하였다. 앤디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했다.

그 후로 몇 달 내내 앤디를 방문하면서, 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복음과 삶을 사랑하는 한 형제로서의 앤디를 지켜 보았다.

그는 영적으로 강했지만, 그의 육체적 상태는 더욱 나빠지는 것 같았다. 화학 치료 요법으로 인하여 그는 매주 4~5일을 심한 구토로 고통을 겪었다.

앤디의 둔부에 생긴 종양이 발전하자 완치에 대한 그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 암종양이 온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폐도 쇠약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앤디는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한 헌신적인 소년단 지도자의 도움으로, 앤디는 곧 독수리상의 달성 요건을 성취하였다.

우리 와드에 속한 이 소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안에, 나는 앤디의 연례 신권 접견을 위한 일정을 정식으로 다음 주 일요일에 잡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요일에 병원으로 갔는데, 앤디가 눈을 감고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나는 조용히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몇 분 동안 앤디가 어렵사리 숨을 몰아 쉰 후에, 나는 그가 "감독님, 저를 접견하러 오셨죠?"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조용히 기도를 마치고, 나는 접견을 시작하였다.

"형제님은 도덕적으로 순결합니까?"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신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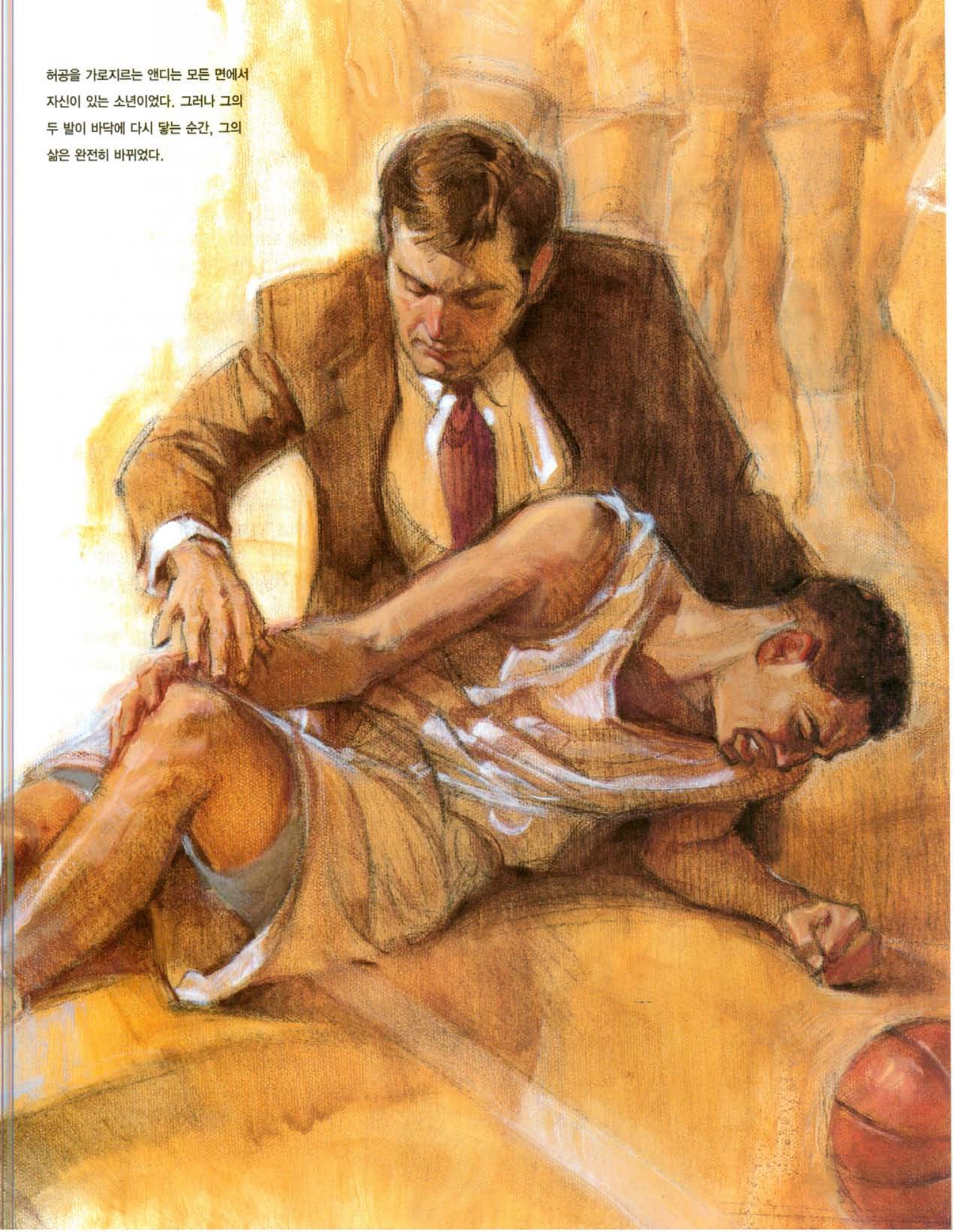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접견은 한 마디로 영적인 향연이었다. 모든 질문을 끝내자, 앤디가 한 가지 질문을 하였다. "감독님, 얼마나 많은 신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가 원하는 만큼"이라고 나는 대답하였다.

며칠 후에 나는 전화 올리는

허공을 가로지르는 앤디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있는 소년이었다. 그러나 그의
두 발이 바닥에 다시 닿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앤디의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요. 감독님께서 와주실 수 없으세요?”라고 캐롤린 투이투포가 물었다.

내 어린 친구에게 갔을 때, 그는 축복을 요청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의 감독으로서 겸손하게 어린 친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지상에서의 앤디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주님의 뜻이라면 앤디를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하였다.

축복을 끝낸 후에, 나는 앤디의 손을 잡고는 말하였다. “앤디 형제,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걸세, 그렇게 될거야.”

하지만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앤디가 끝내야 할 일이 몇 가지 남아 있었다. 어느 정도 고통이 가라앉고 조금은 숨을 쉬기가 편해지자 앤디는 친형제 자매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을 건넬 수 있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표하고는 형제들

앤디의 통가 문화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의 집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앞마당은 곧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는 와드 회원들로 가득찼다.

에게는 모두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앤디에게 말을 건네면서, 나는 그에게 와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친구들을 위해 멋있게 보일 필요는 없다고 전해주세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이 근사한가 아닌가에 신경쓰지 않아요.”라고 그가 말하였다.

앤디는 특별히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작별을 고하였다. 그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숙모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에서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다. 그 동안 앤디는 그 분의 기분이 상할까봐 교회에 다시 나오시라고 용감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었다.

나는 앤디를 바라보며, 앤디를 위한 마지막 부름이 있음을 알았다.

“앤디, 이제는 와드 선교사로서 봉사를 해야지?”

앤디는 웃으며 “그래야죠.”라고 말하였다.

나는 다시 한번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를 성별한 후에, 나는 그에게 첫번째 임무 지명을 주었다. “앤디, 나는 네가 전화를 걸어서 그 숙모에게 너의 간증을 전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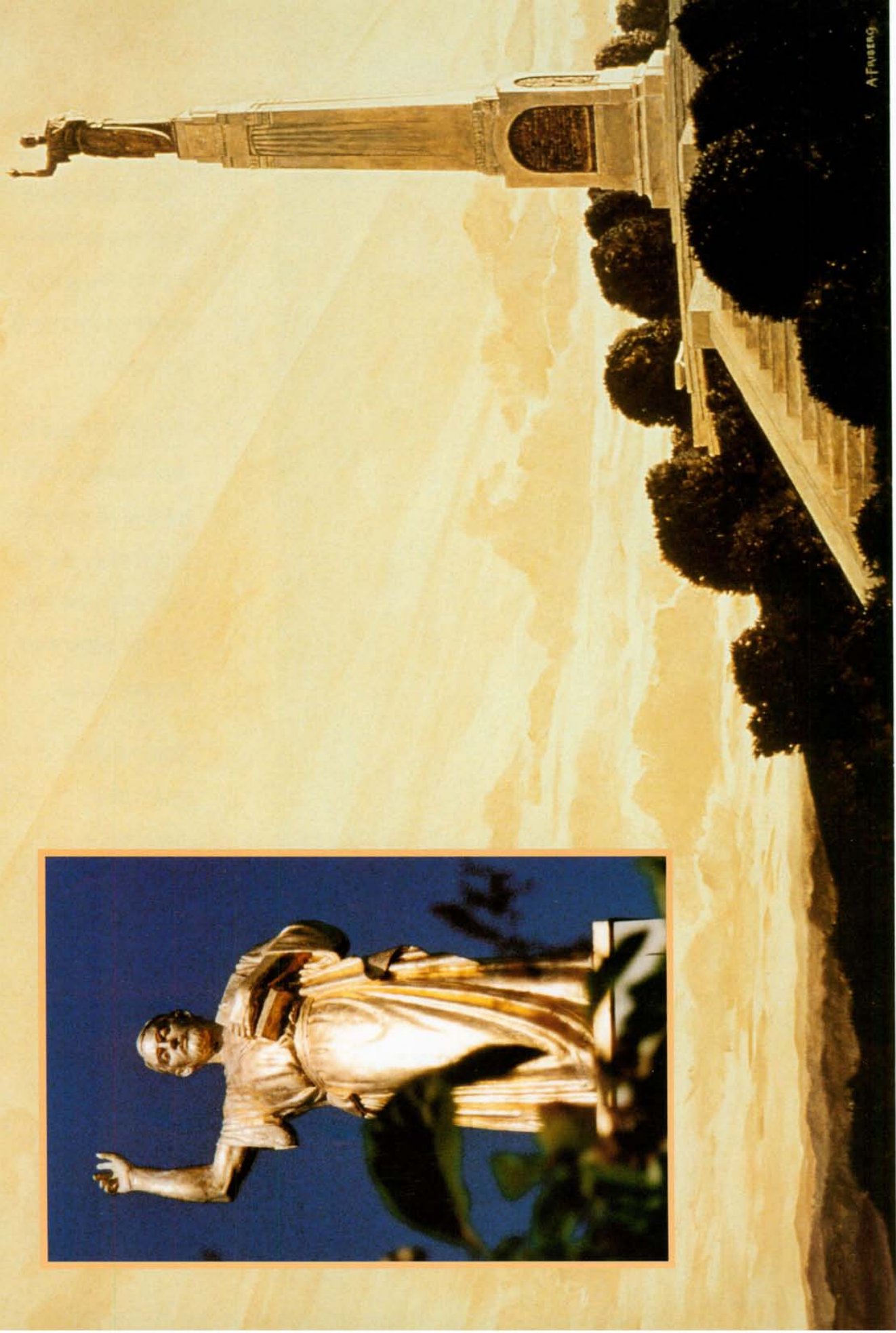
나는 방을 나갔으며, 그는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행하였다.

그날 내내, 친구들과 이웃들이 앤디를 보러 들렀다. 죽어가는 사람의 집 앞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통가의 문화적 전통이었기 때문에, 와드 회원 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투이투포 가족의 집 잔디밭에서 노래를 하여 앤디를 명예롭게 해주기 위해 그룹을 조직하였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앤디의 숨은 더욱 가빠졌다. 그의 아버지와 나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아버지인 투이투포 형제는 그의 아들을 하늘 본향으로 데려가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다. 앤디는 그의 어머니 품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들의 앞마당은 곧 앤디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풍성한 신 주 은혜로”를 부르는 와드 회원들의 노래 소리로 가득찼다. 음악이 그 가정을 둘러쌌으며, 사랑이 그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비록 투이투포 가족은 그들의 아들이며 형제였던 앤디에게 너무나도 이른 작별 인사를 고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도 많은 것, 곧 앤디를 사랑하고 또 그로부터 배울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구모라 언덕의 천사상, 토리프 크니푸스 조각사(왼 촬영: 크리스틴 티 쿡스);
배경: 모로나이 기념비, 아놀드 프라이버그 그림**

토리프 크니푸스는 1881년 노르웨이에서 출생했으며, 1902년 21세였을 때 교회에 입교한 후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미국에서 교회를 위해 여러 개의 조각을 만들었다. 1934년에 교회는 그에게 뉴욕의 구모라 언덕에 세울 모로나이 천사상을 모시라는 기념비를 만들도록 위임했다. 1935년에 고립된 3,150미터의 장충 조각기에 있는 59톤의 화강암 방형탑 장상에 서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
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
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
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
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
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
광을 돌리리 이는 그의 심판하
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
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날아
가는데”, 12쪽 참조.